



우리가 남들과 다른 점은
 꿈을 이루고자 하는 열정과
 그 꿈을 이루겠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열정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마음가짐으로
 삶과 일에서 열정의 씨앗을 싹 틔웁시다.



우수한 품질
 최선의 고객만족

인천 드라이몰탈 제2공장 완공

여름 일기 1

이해인

여름엔

햇볕에 춤추는 하얀 빨래처럼
깨끗한 기쁨을 맛보고 싶다.
영혼의 속까지 태울 듯한 태양아래
나를 빨아 넣고 싶다.

여름엔

잘 익은 포도송이처럼
향기로운 맘을 흘리고 싶다.
방울마저도 노래가 될 수 있도록
뜨겁게 살고 싶다.

여름엔

꼭 한번 바다에 가고 싶다.
바다에 가서
오랜 세월 파도에 시달려온
섬 이야기를 듣고 싶다.
침묵으로 엮드려 기도하는 그에게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싶다.

NEW LEADER, RECREATE, SAMPYO

〈삼표愛〉는 삼표그룹의 기업 철학과 사우들의 이야기를 담은 사내보입니다.



SAMPYO NEWS 삼표산업 레미콘부문 3월 출하량 100만m ³ (루베) 달성 외	04
HOT! 이슈 그 어려운 걸 자꾸 해냅니다. 우리가, 함께! 삼표산업 인천 드라미물탈공장	08
성공열쇠 “선배에게 오늘도 왕창 깨졌어”	12
현장 속으로 차선책(車先策)으로 최선책(最善策)의 결과를 이루다! 삼표산업 서부공장	14
소개합니다 여성으로서의 한계를 넘어 미래를 향해 닳을 올리다 동양시멘트 자원재활용본부장 전경화 전무	18

오늘은 내가 쓴다 사랑하는 울 각시, 경례 보소 경한 재무팀 이종덕 부장	22
맛있는 발견 “기랑몰라 맛을 봐사 알주” 동양시멘트 제주지사 심광진 대리	24
포도 이벤트 열심히 일한 당신 신나게 즐겨라! 여행사진 공모전	26
건강 100세 허리 디스크, 수술해야 합니까?	28
자식 通 리우 올림픽 태극전사. 이들을 막을 순 없다	30

트렌드를 말하다 사지 않고 빌려 쓰니 가벼워졌다	32
여행을 떠나요 떠날까! 하이킹의 천국 스위스로	34
열린 편집실 독자 퀴즈	38
사우 동정 입사를 축하드립니다!	39

www.sampyo.co.kr (주)삼표 사보 '삼표愛'

2016년 여름호(Vol.51) 기간 비매품 • 발행인 정도원 • 발행처 (주)삼표 홍보팀
서울시 종로구 종로1길 42 이마빌딩 15층 • 전화 02-460-7122 • 발행일 2016년 7월 4일
• 디자인 편집디자인실 외곽 02-3447-7601 • 인쇄 내인 02-2278-0773

(주)삼표산업



삼표산업 레미콘부문 3월 출하량 100만㎡(루베) 달성

삼표산업 레미콘부문(전체 27개 공장)은 지난 3월, 레미콘 사업 개시 이후 최초로 월 출하량 100만㎡(루베)를 돌파했다. 4월, 5월에도 각각 99만 5,000㎡, 98만 1,000㎡를 달성해 100만㎡에 근접한 출하량을 기록하며 2분기 월평균 영업이익 50억 원을 달성하는 성과를 이뤘다. 홍성원 레미콘부문 대표이사는 "6월에도 출하량 100만㎡를 기록할 예정"이라며 "그동안 공장부지 매입, 생산성 제고 등 불철주야로 뚝 레미콘 사업부 직원들의 노력으로 상반기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삼표산업 레미콘부문 단체 봉사활동 실시

삼표산업 레미콘부문 본사 근무자 20여 명은 종로구청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 올 4월부터 분기당 1회 정기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봉사활동은 오랫동안 청소하지 않아 위생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있는 종로구 내 저소득 독거노인을 위한 대청소가 주를 이룬다. 4월 29일 첫 봉사활동에서 봉사자들은 종로구청에서 지정해 준 노인의 집을 찾아가 새 이불을 증정하고 헌 이불을 수거했다. 또한 오래된 가구를 청소하고 벽지의 곰팡이를 제거하는 한편, 라면, 휴지, 세제 등 식자재와 생필품도 전달했다. 레미콘마케팅 담당 전형권 상무는 "직원들과 함께 주변의 소외계층을 돌아볼 수 있어 의미 있는 행사였다"라며 "앞으로도 본사가 위치한 종로구 내 소외계층을 돌보는 일에 적극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삼표산업 연구소,
2016년 (사)한국건설순환자원학회 학술대회 '우수발표논문상' 수상**

삼표산업 연구소는 4월 16일 전남대학교 용봉캠퍼스에서 개최된 '사단법인 한국건설순환자원학회 봄 학술대회'에서 우수발표논문상을 수상했다. 우수논문발표상을 수상한 논문은 삼표산업 연구소 이희건 전임연구원 외 5인의 '혼화재 치환율 변화에 따른 초고강도 PHC 파일의 물리적 특성'에 관한 논문이다. 이 논문은 2015년 녹색기술로 등록, 인증(인증번호 제 GT-15-00091호)된 논문으로 고로슬래그미분말을 사용한 '탄소저감형 초고강도 Green PHC 파일' 제조 기술을 다루고 있다. 논문에 따르면 기존 초고강도 PHC파일 대비 Green PHC 파일은 CO₂ 배출량을 m²당 77.23kg으로 줄이며, 일반 PHC 파일 대비 허용지지력이 높아 약 33%의 파일 본 수를 절감할 수 있다. 논문 저자인 이희건 전임연구원은 "이 기술은 110MPa 초고강도 PHC 파일 배합에 고로슬래그미분말을 40% 이상 사용한 친환경 기술"이라며 "고로슬래그미분말 사용에 따른 성형불량, 압축강도 저하 등과 같은 문제를 해결한 국내 최고 수준의 기술"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한국건설순환자원학회는 건설산업에서 사용 가능한 각종 자원 관련 정책 및 기술개발, 건설폐기물 재활용 등 건설과 환경이 연계된 기술과 정책 연구를 하고 있다.



**삼표산업 연구소,
2016년 한국콘크리트학회 학술대회 '우수논문발표상' 수상**

삼표산업 연구소는 5월 12일 전남 여수 엑스포 컨벤션센터에서 한국콘크리트학회 주최로 열린 봄 학술대회에서 우수논문발표상을 수상했다. 우수논문발표상을 받은 논문은 '항온 및 변온 양생조건에 따른 콘크리트의 강도 발현 특성'에 대한 연구다. 논문은 동절기 환경을 고려하여 항온조건 및 변온조건에 따른 콘크리트 압축강도를 실험, 특성을 연구했다. 실험 결과 평균 기온이 4℃ 이하인 경우, 동일한 온도를 유지하는 항온조건보다 온도가 상승 하락하는 변온조건에서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낮아짐을 알 수 있었다. 논문 저자인 삼표산업 연구소 송용원 선임은 "이번 수상으로 삼표산업의 연구 기술력을 콘크리트 업계 전반에 알리게 됐다"라며 "향후 콘크리트를 동절기에 적용함에 있어서 본 연구 결과와 중요한 자료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콘크리트학회는 표준화 국책사업 관련 논문 발표 및 자료 수집과 국내 콘크리트의 기술 동향 파악을 위해 매년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주)삼표기초소재



삼표기초소재, 워크숍 실시

삼표기초소재는 6월 17일부터 18일까지 1박 2일간 동양시멘트 삼척공장에서 워크숍을 실시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이성연 삼표기초소재 대표이사를 비롯해 영업사원 및 공장장 등 40여 명의 직원이 참석했으며, 삼척공장 제조시설을 견학하고 생산공정에 대한 이론 교육을 받았다. 또한 부문별 주요 이슈 사항, 상반기 판매실적 및 하반기 목표 공유, 대표이사와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날 워크숍에 참석한 삼표기초소재 영업2팀 서성철 사원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시멘트 시설 및 생산공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다"라며 "앞으로 영업활동에도 자긍심을 가지고 제품에 대해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주)네비엔

네비엔 환경자원사업부, 당진HE(주) 설립

네비엔 환경자원사업부은 7월 1일 당진HE(주)를 설립했다. 당진HE(주)는 현대 당진제철소 자원화단지 내에서 중장비를 운영하는 업체로, 굴삭기 등 총 28대의 중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77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네비엔은 그룹의 장비전문업체인 (주)신대원의 체계화된 장비운영시스템(정비 노하우, 주유량, 운행시간 등)을 도입해 현대 당진제철소 내 장비업체들의 모범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영동 네비엔 대표이사는 "당진HE(주) 설립을 통해 기존 자원화단지 내 설비운영을 담당해왔던 네비엔REO(주)와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라며 "효율적인 사업운영으로 하루 빨리 수익을 창출하겠다"라고 말했다.

(주)경한



경한 포항사업장, '행복한 밥상' 사랑의 무료급식 봉사 참여

경한 포항사업장 임직원 40여 명은 4월 한 달간 포항시 북구 적십자 무료급식소에서 독거노인 등 어려운 이웃 200여 명을 대상으로 '사랑 담은 행복한 밥상' 사랑의 무료급식 봉사에 참여했다. 이 행사는 포항철강산업단지관리공단인 KBS포항방송국, 대한적십자사경북지사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행사로, 포항철강산업단지관리공단 소속업체 중 20개 사가 한 달씩 매주 월요일에 급식을 하는 행사다. 박영동 경한 대표이사는 "2014년에 사업장 근처에 적십자 무료급식소가 문을 열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찾아오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며 "앞으로는 정기적으로 이곳을 찾아 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경한 철스크랩사업부, 사원·대리 간담회 실시

철스크랩사업부은 6월 14일 포항호텔에서 사원·대리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는 철스크랩사업부 내 사원·대리의 기대역할 공유 및 상하 간 소통을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임순태 철스크랩사업부 대표와 사원·대리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간담회 이후에는 저녁식사와 함께 화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포항사업장 영업2팀 김두실 사원은 "사원 대리뿐만 아니라 전 직원 간 우의를 다질 수 있는 다양한 소통의 자리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며 "각자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함께 개선방안을 도출한다면 회사뿐만 아니라 자신의 발전을 동시에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임순태 대표는 "시시각각 변하는 내·외부 환경의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다양하고 깊이 있는 사고와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라며 "앞으로 다양한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도록 노력해보겠다"라고 밝혔다.

동양시멘트(주)



동양시멘트, 고용노동부 태백지청과 노·사·정 실천협약 체결

동양시멘트는 5월 31일 삼척공장 사무동에서 노·사·정 사회적 책임 실천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협약식에는 이정수 동양시멘트 사장, 박재봉 노조위원장, 김은석 노조위원장, 최상률 고용노동부 태백지청장을 비롯해 회사 임직원 500여 명이 참석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일자리 나누기 ▲협력업체와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사회공헌활동 등을 위한 상호협력이다. 이정수 사장은 "협력업체와 상생협력, 일자리 창출 및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노사가 한마음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최상률 태백지청장은 "일자리 창출과 원·하청 상생협력 및 사회공헌활동을 위해 노사가 함께 노력해주어 감사하다"라고 화답했다.



동양시멘트 자원봉사단, 노인요양시설서 봉사활동 진행

동양시멘트 자원봉사단 20여 명은 4월 23일 강원도 삼척에 위치한 무료 노인요양시설인 '하늘 안식의 집'을 찾아가 주변환경을 가꾸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자원봉사단은 이날 요양시설 주변에 방치된 땅을 일구고 꽃, 나무 등을 심어 화단으로 만들었다. 배대용 자원봉사단 총무는 "식목일이 있는 달에 나무를 심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동료 및 가족들과 함께 요양시설을 찾아 꽃과 나무를 심어 더욱더 뜻 깊었다"라며 "노인들에게도 봉사자들의 따뜻한 마음이 전달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동양시멘트 자원봉사단은 2004년 자발적인 참여로 만들어진 순수 봉사단체로, 임직원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함께 활동하고 있다.



동양시멘트, 고용노동부 태백지청과 일학습병행제 업무협약 체결

동양시멘트는 5월 26일 고용노동부 태백지청(지청장 최상률)과 동양시멘트 삼척공장 사무동에서 국가직무능력표준(NCS)기반 일학습병행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동부지사와 한국폴리텍대학 강릉캠퍼스 관계자도 참석해 일학습병행제 도입 관련 업무 협의 시간을 가졌다. '일학습병행제'는 기업이 원하는 실무형 인재를 기르기 위해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 등을 학습근로자로 채용해 기업 현장에서 장기간의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교육훈련을 마친 뒤 국가가 역량을 평가해 자격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삼척공장장 한상옥 상무는 "일학습병행제 협약식을 계기로 관내 청년 취업을 돕는데 일조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산업현장의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일학습병행제 참여 학습근로자는 참여기간 동안 기업에서 임금을 지급받으며 학습하고 교육과정 수료 후에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기반 국가기술자격을 부여 받을 수 있다.



01

그 어려운 걸 자꾸 해냅니다 우리가, 함께!

지난 5월 9일, 인천시 서구 오류동 검단산업단지에서 삼표산업의 인천 드라이몰탈공장 준공식이 있었다.

지난해 8월 착공 이후 9개월 만에 완공된 인천 몰탈공장은 포장용 50만톤, 벌크용 20만톤을 합쳐

연간 70만톤의 드라이몰탈을 생산할 수 있다. 수도권 내 포장용 몰탈 수요 급증에 대비해

화성 드라이몰탈공장과 달리 포장라인을 두 대로 강화했다. 국내 드라이몰탈 시장 규모는 3,500억원 수준이지만,

일반 소비자가 마트에서 손쉽게 구입하는 유럽시장을 생각하면 앞으로 시장확대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친환경 건설소재 기업 실현’이라는 삼표그룹의 목표를 앞당길 인천 몰탈공장의 설립부터 각오까지를 들어봤다.



02



03



04



05

01 삼표그룹은 드라이몰탈 제품의 모든 원료를 100% 자체 생산함으로써 고품질의 몰탈 제품 생산 체제를 구축, 사업 간 시너지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정성남 공장장(오른쪽에서 아홉번째)과 직원들.

02 인천 서구 검단산업단지에 위치한 인천 드라이몰탈 공장의 생산능력은 포장용 50만톤, 벌크용 20만톤으로 연 70만톤이다. 인천 드라이몰탈공장 전경.

03 삼표그룹은 지난 5월 9일 인천에 드라이몰탈공장을 준공하고 본격적인 수도권 공략에 나섰다. 좌측부터 (주)대명전기 윤경상 대표, (주)삼표산업 설비기획담당 이창호 상무, 몰탈영업담당 최장현 상무, 홍성원 삼표산업 대표이사, (주)삼표기초소재 이성연 대표, (주)삼표산업 인천몰탈공장 정성남 부장, (주)네비엔 한현구 대표, 거성산업(주) 김기남 상무, 나우건설(주) 김광우 대표, (주)에스엔지니어링 이명복 대표.

04 삼표기초소재 이성연 대표가 준공식 기념사를 통해 “드라이몰탈 사업은 삼표그룹이 가진 기존 사업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이라며 “인천 드라이몰탈공장을 거점으로 향후 몰탈 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05 삼표기초소재 이성연 대표가 우수사원에 대해 표창하고 있다. 좌측부터 이성연 대표, 생산팀 이수형 대리, 생산팀 김진환 기장.

“앞으로 9개월, 내년 5월까지의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가동에 들어가야 한다”

인천 드라이몰탈공장 착공허가가 떨어진 지난해 8월 12일, 공장설립 TF에 지상과제가 떨어졌다. 몰탈의 수요는 주택건설이 본격화되는 5월이 성수기. 공장 설립이 늦어지면 성수기를 놓쳐 그만큼 손해다. 또 본격적인 생산이 시작하기 전에 영업팀에서 개척해 놓은 판매처와의 신뢰도 깨질 수 있다. 뻘뻘한 공기 일정에 날씨가 발목을 잡았다. 지난해 여름에는 한 달 정도 비가 왔고, 올해 1~2월 들어서는 북극의 한랭기류가 내려와 한파주의보가 연속 발령됐다. 한겨울 공장이 들어선 인천 서구의 최저 기온은 영하 16도, 체감온도는 영하 25도였다. 맨손으로 철근을 만지면 피부가 달라붙을 정도로 혹독한 날씨가였다. 특히 이 곳은 지역특성상 해풍에 섞인 싸리눈이 자주 오는데, 눈이 쌓이면 철골조 공사 시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일할 날이 적어 공사가 중단되기도 했다.

크고 작은 사고도 잇따랐다. 공정이 80% 정도 완성되어 갈 즈음 공장과 도로 사이 완충녹지에 용접 불뚱이 튀어 화재가 났다. 건조터미에서 연기가 피어오르자 안전관리담당이 먼저 “불이야~”를 외쳤고, 전 직원이 본능적으로 하던 일을 멈추고 뛰어나와 화재진압을 했다. 가장 먼저 뛰어나온 직원은 미리 구비해 둔 소방호스로 물을 뿌렸고 일부 직원은 양동이와 대야에 물을 퍼 날랐다. 자칫 큰 불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초기 진압에 성공하면서 인적·물적 피해없이 넘어갔다.

장비 도난 사건도 있었다. 11월 말부터 1월 사이, 총 4군데의 협력업체에서 한 대에 1,000만원을 호가하는 광파기(전자파의 성질을 이용하여 거리를 관측하는 기계)를 순차적으로 분실했다. 도난범을 잡겠다는 일념 하에 직원들이 밤 12시까지 순번을 정해가며 한 달 동안 경비를 섰다. 결국 도난범은 잡지 못했고 이를 동안 공사를 중단하는 피해를 입었다.

몰탈영업담당 최장현 상무는 “하루는 생산팀 이수형 대리가 병원에 입원하게 돼 직원 모두가 병문안을 갔습니다. 병실에 들어서자마자 ‘몸은 좀 아껴냐는 말보다 ‘빨리 일어나서 공장 짓자는 말이 먼저 튀어나오더군요. 서운할 법도 할 상황이었는데, 말한 지도 듣는 이 대리도 한바탕 웃었습니다. 그만큼 공기업수는 우리에게 지상과제였습니다”라며 당시를 회상했다.

“완공된 공장은 돌아가야 한다.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

공장 가동을 위해서는 숙련된 생산인력과 일감이 필요하다. 인천 몰탈공장에 필요한 신규 직원은 20여명. 이들 모두를 채용하기까지는 꼬박 6개월이 걸렸다. 공장이 들어선 김단산업단지가 교통 접근성이 떨어지는 까닭도 있지만, ‘기술과 경력’보다는 ‘정실성과 의지를 중시하는 정성남 공장장의 간간한 인재관도 한 몫 했다. 그 결과 인천 몰탈공장에 다양한 경로로 검증은 거쳐 채용된 인력이 많은데, 은행원에서 보험설계사까지 과거 경력이 특이한 직원이 유독 많다. 채용된 직원들은 드라이몰탈 1호 공장인 화성 드라이몰탈공장에서 2~3개월 동안의 교육을 통해 생산 현장 투입에 필요한 실무를 익혔다. 또한 풍부한 경험과 숙련도를 갖춘 화성 근무자를 인천 몰탈공장에 투입하는 방안을 세우는 등 원활한 생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끝냈다.

본사의 영업팀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공장이 준공되기도 전에 인천지역의 모든 판매처를 방문해 경쟁사 제품단가와 현지 유통구조를 파악하고 판매처 확보에 나섰다. 뿐만 아니라 매주 토요일에는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해 담당 인력을 독려하고 생산직원과의 스킨십을 강화하는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서로에 대한 높은 이해와 협력이 좋은 품질의 몰탈생산, 영업활성화, 시장점유율과 매출확대, 수도권 몰탈시장 판도 변화로 이어져 선순환 구조를 이룰 수 있는 근간이 되리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01 품질팀 장동우 대리가 드라이몰탈의 유동성 정도를 실험하기 위해 슬럼프(Slump) 테스트를 하고 있다.
 02 생산팀 우승진 주임이 롤포장된 포장자를 교체하고 있다.
 03 삼표그룹은 인천에 드라이몰탈 2호 공장을 준공함으로써 드라이몰탈을 미래성장동력으로 삼고 국내 최고의 건축재료 업체라는 자부심을 바탕으로 동종업계 1위로 우뚝 서겠다는 포부를 갖고 있다. 생산팀 이수형 대리(위)와 김상용 기장(아래)이 믹서를 점검하고 있다.
 04 컨베이어벨트를 빠져 나온 드라이몰탈 제품은 5개씩 좌우 정렬된다.
 05 생산팀 김진규 사원이 날개 포장되어 컨베이어벨트를 지나가는 제품을 점검하고 있다. 드라이몰탈은 1포대에 40kg이며 개량, 혼합, 포장 등 모든 공정이 자동화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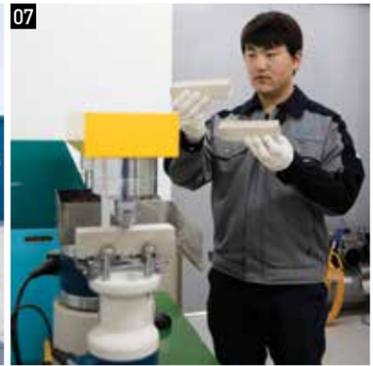


“모든 준비는 끝났다. 이제 확인하는 것만 남았다”

전쟁은 승리를 확인하는 과정이라는 말이 있다. 모든 준비가 완벽하게 이루어졌을 때에 자신감이 앞서 는 법이다. 인천 몰탈공장은 생산과 영업의 완벽한 조화도 강점이지만 원료의 수급과 설비, 운영 효율 성 측면에서도 강점을 갖고 있다.

품질 우수성 측면에서 삼표의 이름을 내건 몰탈의 품질은 타사를 능가한다. 후발주자이기는 하나 삼 표그룹은 건설기초소재 전문회사로서 지속적인 연구개발에 힘써왔다. 또한 제조원료의 100%를 그룹 내에서 조달해 원가와 품질 측면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동양시멘트 인수로 기초소재 전 반을 아우르게 된 포트폴리오 덕분이다. 몰탈의 핵심소재인 모래는 인천공장에서 3km 거리의 삼표산 업 해사사업소에서 가져오고, 산림골재 또한 KS인증 획득한 양주사업소에서 가져온다. 여기에 레미 콘과 드라이몰탈을 동시에 생산하는 타사와는 달리, 드라이몰탈 전용 공장을 확보함으로써 출고, 적 재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40kg씩 소포장된 드라이몰탈 포대를 50개씩 그룹 포장하는 ‘팩 커(Packer)’와 커팅기인 ‘팔렛타이저(Palletizer)’ 라인은 글로벌 최신품 설비로 구축되어 있다. 인천 몰 탈공장의 영업지역은 화성 드라이몰탈공장에서 지리적으로 먼 서울 및 인천, 김포, 부천, 파주, 고양 등 경기 서북부권이다. 생산능력은 연 70만톤이며 화성공장까지 합치면 연 140만톤이다. 수도권 몰탈 시장 360만톤의 30% 수준에 이른다. 삼표그룹은 인천 몰탈공장 가동을 계기로 현재 12%인 수도권 드 라이몰탈 시장점유율을 올해 안으로 17% 이상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는 건설사 대상의 본격적인 영업에 필요한 KS인증 등의 소요기간을 감안해 보수적으로 잡은 목표다.

앞으로 수도권 드라이몰탈시장에 치열한 각축이 예상된다. 하지만 모든 것은 삼표몰탈의 우수성과 성 과를 눈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Mini Interview

몰탈 선진국 수준의 제품을 만들겠습니다 - 정성남 공장장



인천 몰탈공장만의 장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직원들 개개인의 열정과 책임감입니다. 주말도 반납하고 폭염과 혹한을 견뎌 직원들 자체가 우리 공장의 장점이자 자랑거리입니다. 공사기간을 맞춘 것도 우리 식구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공장 설립 때부터 지금까지 진두지휘하셨는데, 특별히 힘들었거나 좋았던 기억이 있으신지요?

외자설비 중 팔렛타이저 설치 시 애러가 있었는데, 당연히 공급업체에서 해결할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업체에서도 솔루션을 제시하지 못하더군요. 결국 화성공장 직원들의 도움으로 설치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업체에서 당초 제시했던 설치 소요기간을 앞당겨 설치했습니다. 전문성에 기반한 동료의식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으리라 생각합니다.

향후 목표는 어떻게 되시는지요?

현재 몰탈시장은 한일시멘트와 아세아시멘트가 독점하고 있어 기술개발에 대한 동기가 부족합니다. 고여서 썩은 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품질은 국제적인 수준에 떨어집니다. 고품질의 인천 몰탈공장은 신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독일과 미국 등 몰탈 선진국 수준의 제품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평소 공장 직원들에게 강조하시는 점은 무엇인지요?

생산성과 품질도 중요하지만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의 건강도 중요합니다. 동료애와 안전관리를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직급과 직무를 떠나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라고 당부하는데, 저 역시 경청의 자세로 한 발 더 다가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06 그룹 포장되어 완성된 제품은 팔레트에 실려 이송된다. 방수포장된 드라이몰탈은 평판 트레일러에 실려 각 판매처에 배달된다.
 07 품질팀 김명성 대리가 제품 강도 테스트를 하고 있다.
 08 생산팀 이정민 사원(왼쪽)과 김호성 주임(오른쪽)이 상황실에서 드라이몰탈 제품 생산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

“선배에게 이럴듯 왕창 깨졌어”

따르고 싶은 선배, 귀감이 되는 상사를 만나는 정말 쉽지 않은 것일까. 조직에서는 누구나 후배가 되고 선배가 된다. 하지만 흐르는 시간을 버틴다고 해서 경력이 쌓이는 것은 아니다. 당신의 경력에 날개를 달아줄 '멋진 선배'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이 필요하다.

당신은 후배에게 어떤 사람인가

예전 직장 때 일이다. 명문대 출신에 두뇌회전이 남다르고, 업무 역량도 뛰어나 동기들보다 승진이 빨랐던 전도유망한 선배가 있었다. 그렇지만 승승장구하던 이 선배에게도 한 가지 약점이 있었다. 성격이 직설적이고, 후배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쉽게 내뱉는다는 점. 즉, 후배들이 업무에서 실수라도 하면 그 즉시 불려내 영혼이 탈리도록 '깨는' 일이 잦았다. 때로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잔소리나 질책을 가했다. 그렇지만 후배들은 아무런 말대꾸를 하지 못했다. 회사에서 워낙 잘 나가고 카리스마가 강한 선배인 터라 자칫 변명을 늘어놓다가는 더 큰 참사가 벌어질 게 뻔했기 때문이었다. 후배들은 이 선배에게 복종을 보이기는 했으나, 어디에도 존경심은 없었다. 어느 날, 이 선배가 1년간 해외 파견근무를 나가게 됐다. 후배들은 안도했다. 일시적이거나 초강력 시어머님이 사라진다니 얼마나 기쁜 일인가. 그리고 1년 후, 선배가 복귀했다. 다들 긴장 모드 돌입. 가뜰이나 카리스마 강한 성격에, 해외근무라는 화려한 경력까지 더해졌으니 그 자신감을 바탕으로 후배들을 얼마나 뒤통할 것인가. 그러나 모두의 예상을 깨고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 예전 같으면 보고서에 오탈자 한 글자만 있어도 세상 떠나갈 듯이 후배를 깨던 이 선배, 웬 일인지 후배들이 실수해도 잔소리를 하지 않는 게 아닌가. 심지어, 어느 날에는 자리로 부서의 막내를 부르더니 “OO 씨, 기안서 쓸 때 이걸 이렇게 쓰고 저건 저렇게 써야 하는 거야. 그리고 팁을 하나 알려줄게”라며 친절하게 업무 비법까지 전수해 주는 게 아닌가. 예전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었다.

어느 날 부서 화식자리에서 한 후배가 용감하게 “선배님, 솔직히 요즘 놀랐습니다. 선배님이 예전과는 너무나 많이 달라진 것 같아서 다들 어리둥절해 있습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에 선배가 “해외에 나가 일해보니 시야도 넓어지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 익숙하던 업무환경에서 살짝 비켜서서 자신을 바라보니, 그동안 나 혼자만의 성공을 위해 질주하고, 남들을 배려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후회가 되더라고. 특히 후배들에게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많은 생각이 들더라”라며 담담히 말했다. 이런 반추 끝에 선배가 내린 결론은 후배들에게 ‘헬프(Help)’의 존재가 되자는 것이었다. 예전에는 후배가 실수



후배들에게 나는 어떤 존재일까?



하면, 평소 쌓아왔던 다른 불만까지 다 퍼부었지만 차근차근 생각해보니 그런 질책은 후배에게 상처만 줄뿐 업무향상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이제는 후배가 실수하면 바로 잡아주고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 스킬(Skill)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도움을 주게 됐다는 설명이었다. 원래도 잘 나가던 선배였지만 귀국 후에는 후배들의 ‘마음’까지 사면서 요즘 이 선배는 더욱 승승장구하고 있다.

나는 어떤 선배이고 상사인지 객관적으로 바라본 적이 있는가

직장생활은 누구나 힘들다. 신입사원부터 시작해 최고경영자에 이르기까지 직장생활이 편하고 즐거워서 회사로 출근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그렇지 않아도 힘든 직장생활인데 거기에 더해 ‘독한’ 상사까지 있다면 출근길 발걸음은 무거울 수밖에 없다. 흥미로운 부분은 상당수 직장인이 상사와 선배 때문에 힘들다고 하소연하면서 정작 자신 때문에 후배들이 힘들 수 있다는 사실은 간과하고 있다는 점이다.

술만 마시면 직장상사를 욕하는 친한 형님이 있었는데 그 내용이 이랬다. “아니, 그 원수 같은 인간이 말이지, 퇴근 후나 주말에도 문자나 카톡으로 업무지시를 내리는데 미치겠다니깐. 부하 직원의 사생활은 지켜줘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정작 이 형님이야말로 술자리에서 회사 후배들을 부르는 것이다. 나와 술자리에서도 연신 후배들에게 전화해서는 “OO야 어디냐. 근처에 있으면 이리로 와서 한잔하고 가”라며 재촉하기 일쑤였다. 내가 “형이 직장 상사니까 후배들은 오기 싫어도 억지로 와야 할 텐데, 괜 찮겠수?”라고 물으면 “뭐가 문제냐. 술값은 내가 내고, 자기들은 와서 공짜로 술만 먹고 즐기다 가면 되는데 손해 볼 것 없지. 나 같은 착한 상사 만난 거 복인 줄 알아야지”라고 일축했다. 과연 직장 후배들은 이 형님의 술자리 초대를 고맙게 생각할까? 이 선배가 자기 상사를 욕하는 것처럼, 후배들은 이 선배에게 불만을 갖고 있지 않을까?

성공한 직장인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훈련이 필요하다. 남을 비판하기에 앞서 남들에게 어떻게 보이고 상대방이 바라보는 것들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특히 회사에서 중간 관리자급 위치에 있다면 상사에게 품은 불만을 자신에게 적용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자주 야근을 시키는 임원에게 불만을 품기에 앞서 혹시 나는 후배에게 퇴근 직전 업무지시를 명한 적은 없었는지,

말끝마다 인신공격성 발언을 해대는 악마같은 부장을 욕하기에 앞서 혹시 후배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았는지, 업무를 떠넘기는 과장에게 복수극을 꾸꾸기에 앞서 후배들 앞에서 솔선수범하는 떳떳한 선배였는지, 업무 성과를 가로채는 알미운 차장을 미워하기보다 후배가 올린 제안서를 임원에게 전달하면서 “이 제안서는 OO 대리의 초안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라는 점을 명확히 밝혔는지 말이다.

내가 한 마음고생, 너도 한번 당해보라?

앞서 언급한 해외근무 선배 사례처럼 직장 상사는 후배들에게 ‘헬프’라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권위 굳이 잡고 권위를 내세운다고 해서 후배들이 존경심을 갖지는 않는다. 오히려 후배들에게 술자리 ‘뒷담화’ 안주로 전락하기 십상이다. 후배가 업무상 실수를 했다면 실수한 부분 외에도 자신만의 필살기를 알려주면 100점짜리 선배가 될 수 있다. 거기에 대고 “OO 씨, 당신 이럴 줄 알았어. 말 나온 김에 한마디 하겠는데 아침에는 왜 자꾸 지각하는 거야. 정신자세가 그 모양이니 이런 실수가 자꾸 나오는 거 아니야! 그리고 기안서는 왜 그렇게 늦게 올려” 이런 식으로 작은 실수 하나에도 ‘날 잡았다’는 듯이 공격을 가하면, 상대방은 반성은커녕 반감을 품을 수밖에 없다. 만약 신입사원 시절 상사를 잘못 만나 마음고생을 했다면,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후배들에게는 마음고생을 안 시키는 선배가 되면 된다. ‘나도 당했으니, 너도 한번 당해보라’라는 심보를 가지고서는 성공적인 직장생활을 할 수 없다. 직장에서 존경받는 상사가 되려고 억지로 노력할 필요는 없다. 자신이 상사에게 느꼈던 어려움, 부당함, 분노와 좌절감을 후배는 안 느끼게 해주겠다는 마음가짐만 있으면 된다. 결국, 이러한 마음가짐이 좋은 상사와 나쁜 상사를 가르는 가장 큰 요인이 된다.

차선책(車先策)으로 최선책(最善策)의 결과를 이루다!

시간별 차량 입출고 관리로 최대 출하량 신화 쓴 서부공장

혁신은 외부의 저명한 컨설팅이나 최신 장비의 도입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한 고민과 개선하려는 의지,
그리고 아이디어에 달려 있다.



김영열 공장장(오른쪽에서 12번째)과 삼표산업 서부 레미콘 공장 직원들이 파이팅을 외치며 활짝 웃고 있다.

미국의 어느 비누공장 이야기

미국의 한 비누공장 제품에서 포장기계의 오작동으로 가끔 비누가 들어있지 않은 불량품이 생기는 경우가 있었다. 소비자들의 불만이 잇따라 경영진은 외부 컨설팅을 받았다. 그리고 X-레이 투시기를 포장공정에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 비용: 컨설팅비 10만 달러, 기계값 50만 달러
인건비 연간 1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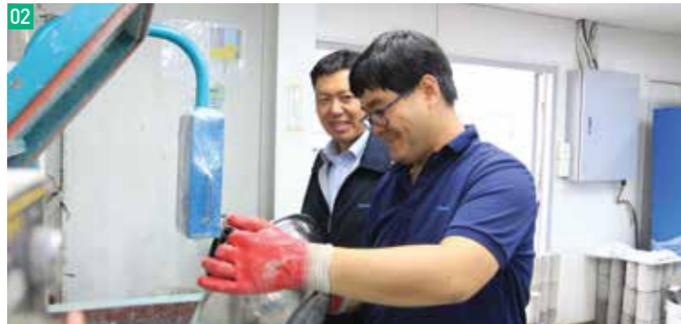
X-레이 투시기를 주문하고 기다리는 몇 달 동안 불량률이 신기하게도 '제로(0)'가 됐다. 이유를 알아보니 새로 입사한 직원이 집에서 선풍기를 가져와 비어있는 케이스를 바람에 날려버렸던 것이다.

* 비용: 50달러

최근 블로그와 페이스북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회자되는 글이다. 오늘날 많은 기업 임직원들은 업무의 소용돌이에 휩쓸려 다닌다. 연말이 회의에 참석하고, 여기저기 사고를 수습하느라 동분서주한다. 하지만 왜 자신들이 이리도 바쁘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하지 않는다. 그 결과 열정이 넘치고 진취적인 임직원조차 가장 중요한 목표를 간과하거나 놓치고 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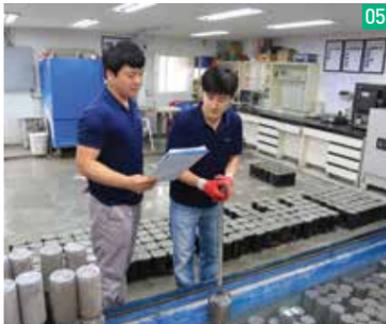
140% 늘어난 생산량의 비결, '교통정리'

삼표산업 서부 레이콘공장의 문제점은 삼표그룹 내에서 두 번째로 물동량이 많은 공장임에도 불구하고 주차와 정차공간이 협소하다는 것이다. 하루 백여 대의 레이콘 차량과 골재, 혼합재 차량이 오가고, 여기에 고정주차 90대까지 감안하면 1만 6,227㎡(5,000평에도 못 미치는 넓이다) 부지의 공장은 그야말로 송곳하나 세울 공간도 부족하다. 더구나 차량이 한꺼번에 몰리면 병목현상까지 벌어져 직원들이 교통정리에 투입돼야 했다. 결국 좁은 부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교통정리가 최우선이었다. 시냇말로 길 때 끼우고 뺄 때 빠는 지혜가 필요했다. 먼저 시멘트를 실은 벌크트레일러는 오전 7시에서 9시 사이에는 공장에 들어올 수 없도록 했다. 14m에 달하는 거대한 차량이 좁은 공간에서 회전하려면 주변의 모든 차량이 꼼짝달싹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당일 입고되는 세척사는 새벽 5시에서 6시 사이에 들어오고 재고를 비축해 여러 번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다. 모래와 자갈을 실은 덤프트럭은 시간을 분배해서 들어오게 했다. 모든 입고와 출고 차량을 시간대별로 제한하고 허용함으로써, 서로 뒤엉키는 상황으로 인해 지체되는 시간을 줄였다. 주차질서도 매우 중요했다. 고정주차 90대 중 한 대



01 영업팀 우상조 부장(가운데)이 주민석 사원(왼쪽), 정영현 사원(오른쪽)과 함께 하반기 영업목표에 대한 회의를 하고 있다.

02 품질팀 최동훈 부장(왼쪽)과 이필원 사원(오른쪽)이 실험실에서 콘크리트 배합 시험을 하고 있다.



03 서부공장 직원들은 분기 1회 전 직원이 참여하는 '마을 길 청소'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04 출하할 황회식 과정(위)과 오퍼레이터 이은경 사원(아래)이 출하 현황에 대해 지켜보고 있다.

05 품질팀 노이환 대리(왼쪽)와 박광현 대리(오른쪽)가 콘크리트 압축강도 측정을 위해 양생수조에서 공시체를 꺼내며 대화하고 있다.

도 잘못 주차하면 나머지 차량에 영향을 주고 이는 다시 원료의 입고와 완성품의 출고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잘못 주차된 차가 있으면 사진을 찍어 당사자에게 보여주는 등의 자극을 통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그 결과는 놀라웠다. 하루 3,000루베 생산에 불과했던 서부공장 출하량은 3,500루베, 4,000루베로 급상승했고, 지금은 하루 출하량 4,500루베를 목표로 하고 있다. 김왕열 공장장 부임 초기 "하루 3,000루베 이상 생산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었던 영업팀의 주장이 무색해진 순간이었다.

수도권 서부에서 레이콘 공급의 주요 거점으로 거듭나다

2001년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간 서부공장은 일산과 상암지구 건설의 일등 공신이었다. 일산 MBC사옥, 상암동 KBS미디어센터, 지하철 9호선, LG사이언스파크, LG그룹 통합연구단지 등 서부공장에서 만든 레이콘으로 건설소재를 사용했다. 현재는 김포공항 옆 마곡지구가 주요 수요처이며, 앞으로 그 물량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부공장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 있다. 담벼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아주산업의 레이콘 공장이 위치에 있다. 10km 거리에는 유진기업도 있다. 경기도 일대와 서울 서부지역 공략의 전초기지인 셈으로, 유진과 아주 두 기업의 레이콘 공장은 각각 '1호 공장'으로 불릴만큼 출하량도 많고 영업경쟁도 치열하다. 서부공장 직원들은 이들 기업의 직원들과 만나면 서로 겉으로는 웃지만 경쟁사 레이콘 차량

을 보며 '저 차는 어디로 가냐'하는 생각이 절로 든다고 한다. 서부공장은 효율화에 기반한 생산량 확대에 이 같은 경쟁에서 이겨나가고 있다. 건설시황을 감안해 올해 출하 목표량은 88만 루베, 지금은 100만 루베로 목표를 수정하고 생산과 영업을 독려하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밤 늦게도 레이콘 출하가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레이콘 운송기사들의 '8.5제(오전 8시 출근, 오후 5시 퇴근)'가 실시되고 있어 목표 달성이 녹록치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만 루베를 달성하면 그 의미와 상징성은 기록에 남을 만하다. '생산성 혁신'이라는 성공 체험은 직원들이 향후 팀장이 되고 공장장이 됐을 때 좋은 경험과 이야기거리가 됨은 물론, 현재의 팀원들에게 긍정적인 동기가 될 것이다. '연간 출하량 100만 루베'는 서부공장 설립 이래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지만 모두들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해내고야 말겠다는 각오로 오늘도 열심히 각자 업무에 매진하고 있다.

* 서부공장 레이콘 출하량 실적

2011	2012	2013	2014	2015
68.5	71.7	78.8	81.0	89.4

단위 : 만루베 m³

Mini Interview

기업과 지역민의 상생을 고민합니다 김왕열 공장장



직원들 애사심 향상을 위한 일화가 있습니까?

워낙 정신없이 바쁜 공장이다보니 전 직원이 모이는 회식이 쉽지 않아요. 개인의 주말 일정도 감안해야 하고요. 그래서 2~3달에 한번씩 평일 저녁시간을 활용해 1박 2일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바베큐 식사 이후 족구, 배드민턴 등 운동을 하기도 하고 한쪽에 노래방 시설이 구비되어 있어 스트레스를 풀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몇 명 빠졌는데 지금은 전원이 참석하며 기다리는 워크숍이 됐습니다. 서로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을 미리 적어서 공유합니다. 개인의 주말 시간을 희생시키지 않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긴밀한 스킨십이 가능합니다. 다음날 아침 새벽 5시에 항상 휴대하는 음주측정기로 체크하고 출근시킵니다.

서부공장의 장점이 있다면요?

모든 직원들이 뛰어나지만 특히 품질팀 직원들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품질팀 인원이 총 11명인데 그 중 7명이 기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통 실험실장 이하 직원들은 자격증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공장 직원들의 자격증 취득률은 64%나 됩니다. 그만큼 적극적이고 자기 계발에 열성적입니다.

평소 공장 직원들에게 강조하는 점은 무엇인가요?

첫째, 긍정적 사고를 하라고 합니다. "사고가 긍정적으로 바뀌면 안 될 것이 없다. 혼자해서 안 되면 같이 하면 된다. 그래서 개인 하나 하나의 긍정적인 생각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합니다. 둘째는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말하라고 합니다. "힘든 점이 있으면 힘들다고 말하면 된다. 몸이 힘들면 일찍 집에 보내줄 것이고, 업무적으로 안 되는 일이 있다면 해결해 줄 것"이라고 동료애를 강조합니다.

셋째, 주인의식을 갖자고 격려합니다. "주인의식을 가지면 실적이 좋아지고, 실적이 좋아지면 분위기가 좋아지고, 분위기가 좋으면 안전사고도 덜 난다"고 말합니다.

평소 버릇이나 습관이 있습니까?

수시로 집무실 모니터와 휴대폰으로 공장 CCTV를 보는 것이 습관입니다. 눈으로 직접 확인하지 않고는 지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상황별 현장에 빨리 대응하고자 얼마 전에 사무실에도 대형 모니터를 설치했습니다. 직원들도 수시로 CCTV를 관찰할 결과 생산성이 더욱 좋아지고 있습니다.

서부공장에서 하는 사회공헌 활동이 있다면?

큰 트럭들이 왔다갔다하면 주민들이 먼지나 소음이 불편해 합니다. 꼭 이들의 민원 때문이 아니라, 마을 정화활동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전 직원이 참여해 마을길 청소를 합니다. 회전 브러시가 달린 도로청소차를 임대해 물청소를 하고, 직원들은 쓰레기를 줍습니다. 기업과 지역민이 공생하고 상생하는 방안을 항상 고민중입니다.



여성으로서의 한계를 넘어 미래를 향해 닻을 올린다

동양시멘트 자원재활용본부장 전경화 전무

여성의 고위직 진출을 가로막는 조직 내 보이지 않는 장벽을 '유리천장'이라고 한다. 이 단어는 미국의 경제 주간지 월스트리트저널이 1970년에 만들어낸 신조어로 우리 사회의 보수성과 경직성을 상징하는 사회적 편견을 지칭한다. '철의 여인'이라 불렸던 마거릿 대처 영국 수상과 휴렛패커드(HP) CEO였던 칼리 피오리나같은 여성이 '유리천장'을 깬 대표적인 인물로 손꼽힌다.

“업무보고를 위해 본사에 올 때가 있습니다. 본사 화장실에 들어서면서 마주친 청소 아주머니에게 공손하게 인사를 했더니 인사말 대신 '어떻게 들어왔냐'고 묻더군요. 저를 외판원으로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설사 정말 외판원처럼 보였더라도 제가 남자라면 그렇게 물어보지 않았겠지요. 영업현장에서 익히 경험했던 터라 조금 씩씩하긴 했으나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지난 3월, 동양시멘트 자원재활용본부에 전경화 전무가 새로 부임했다. 국내 시멘트업계 최초로 여성 임원에 오른 바 있는 전경화 전무는 자원재활용 사업을 그룹 제2의 미래성장사업으로 키우겠다는 각오다. '유리천장'을 깨트린 전경화 전무를 만났다.

(사보기자와의 인터뷰를 기반으로, 전경화 전무가 들려주는 '나의 이야기'로 재구성했다. 편집자 주)

나는 직장인이기에 도전한다

이전 프랑스 화학회사를 다닐 때, 영업팀에서 3년 동안 세 명의 팀장이 옷을 벗은 적이 있었습니다. 경쟁사끼리 영업이 치열한 상태에서 영업부진으로 불가피하게 회사를 그만뒀어야 했습니다. 그 결과 영업팀장 자리는 회사에서 가장 기피하는 곳으로 어느 누구도 맡으려고 하지 않는 독배(毒杯)가 됐습니다. 이 때 제가 한 번 해 보겠다고 손을 들었습니다. 업무에 변화를 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영업상황이 워낙 바닥이었기 때문에 더 망칠 것이 없다는 나름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무엇보다 실패한 세 명의 팀장들은 '성공의 포로' 즉, 기존 일하던 방식을 고수한 채 변화를 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니다. 상황이 바뀌면 자신도 변하고 일하는 방식도 변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입니다.



나는 직장인이기에 발전한다

직장은 자신이 배운 것을 써먹는 곳이라는 생각이 강하죠. 그런데, 계속해서 노력하고 변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흐르는 강물보다 빨리 헤엄쳐야만 원하는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으며, 빨리 헤엄친다는 것은 남들보다 뛰어남을 의미합니다. 남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도구는, 즉 변신의 방법은 공부밖에 없습니다.

첫 직장에서 다른 직원에게 부탁하는 것이 싫어서 배웠던 게 영어였습다. 학원도 다니고, 업무시작 전후에 어학 테이프를 듣고 또 들었습니다. 자막 없이 영화보고, 팝송을 따라 부르고, 잡지를 읽는 등 가장 교과서적인 방법으로 공부했습니다. 회사에서 일 잘한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배운 것이 일본어였습니다. 당시 제 업무인 수출에 대해 선배들로부터 배운 것이 없지는 않았지만, 기왕 업무를 담당할 바에는 제대로 해보자는 심산이었죠. 당시 직장에서는 관련 교재가 대부분 일본어인 탓에 퇴근 후 일본어에 빠져 살았습니다. 나중에는 책 한 권을 번역할 정도의 실력을 갖출 수 있었습니다. 프랑스 유학 전에 프랑스어는 청계천에서 산 단 파리로 프랑스 뉴스를 들으면서 배웠습니다. 단파라 날씨에 따라서, 계절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접음이 다릅니다. 이리저리 안테나를 돌려가며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영어, 일본어, 프랑스어에 대한 감을 잃지 않기 위해 휴대폰에 라디오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삼척과 본사를 오갈 때에 들곤 합니다.

그렇게 배운 외국어가 고객사에 도움이 되고 실적으로 이어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해외프로젝트를 담당할 때 거래사였던 대우건설에서 알제리 입찰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번역하시는 현지 직원이 바빠서 입찰 진행에 문제가 생겼는데 프랑스어를 할 줄 알았던 제가 이틀 동안 직원들과 함께 사무실에서 세세한 준비까지 번역을 하며 입찰준비를 했습니다. 그 후 대우건설에서 그 프로젝트를 수주해 저를 명예팀원으로 임명하고 개인 작업 공간도 내줬습니다. 그 후 영업 미팅 때 접견실이 아닌 제 공간에서 대우건설 여러 팀의 고객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영업실적이 수직으로 상승했던 것은 물론입니다.

경영대학원과 영업 공부는 많은 일의 성과를 위한 공부였습니다. 프랑스어 실력 덕에 들어가게 된 프랑스 화학회사 재직 시절, M&A(인수합병) 업무를 맡게 됐습니다. 관련된 경험과 지식이 없었으니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고, 좀 더 나은 인수협상을 위해서라도 공부 밖에는 길이 없었습니다. 바로 뛰어가 경영대학원에 지원했습니다.

영업을 알기 위해서는 사내교육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다단계 판매 회사에도 가입해 노하우를 배웠습니다. 보험회사 영업비법도 궁금했지만

그곳은 취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대안으로 다단계 회사에 가입했습니다. 퇴근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6개월 동안 그 곳으로 출근했죠. 영업의 왕도는 제품에 대한 전문지식과 사람에 있다고 느꼈습니다.

화학원료 영업을 할 때는 화학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나중에는 고객들이 화학을 전공했냐고 묻기까지 했으니, 웬만한 대학원생보다는 제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내 시멘트회사 근무 시절에는 성공은 못하였지만 콘크리트 자격증 공부를 하면서 콘크리트에 대해 많은 공부를 했고 나중에 해외건설프로젝트 담당 때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제가 팔고자 하는 제품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면 상대방을 설득시킬 수 없습니다.

영업은 또한 사람의 일입니다. 관계의 설정과 관리가 무척 중요하죠. 영업하려면 대화를 많이 해야 하니 경영철학, 심리학 관련 서적을 일주일에 한 권 정도 읽는데, 좋은 책은 고객 선물용으로도 사서 줄 수 있으니 일석이조입니다. 사무실에 놓아둘 수 있는 화분이나 케이크, 빵 같은 작은 선물도 자주 하고요. '나를 기억해 달라'는 의미에서 업계 현황을 담은 신문, 잡지 스크랩을 1주일에 한번 메일로 발송했는데, 나중에는 스크랩을 챙겨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서는 여자라서 조금 이득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기를 낳은 거래처 직원에게 질 좋은 미역을 선물한다던가, 가족문제나 아내와의 문제 등에 대한 상담도 해 줍니다. 남자들은 술 마시면서 영업하지만 저는 조금은 사적인 관계로, 보다 끈끈하게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장사(영업)는 이문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조선시대 거상 임상옥의 말)이라는 말을 항상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직장인이기에 최선을 다하자

저의 예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 직원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입니다. 만약 외부의 교육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비용과 시간을 고려하기보다 먼저 그것이 업무에, 회사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느냐를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공부 외에도 직원들에게 항상 당부하는 것이 있는데, '솔직하'는 것입니다. 영업목표와 같이 숫자로 나타나는 것은, '업황과 외부환경에 따라 시나리오별로 어떤 부분이 선결되거나, 뒷받침된다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나 현실적으로는 어느 정도다'라고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보고 당시의 분위기와 질문 수위에 따라 허위 보고하는 것은 금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업무에 대한 태도가 좋은 사람이 일을 빨리 배우고 잘 해내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좋은 태도란 적극적인 오픈 마인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긍정 에너지는 주변 동료들까지 빛나게 하는 원천입니다. 솔선수범, 주인의식, 끝까지 해내려는 의지, 협업의 자세 등의 훌륭한 태도가 자신을 발전시키고, 결국 회사에 도움이 되는 인재로 성장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할 것

주어진 목표이기도 하고 나 자신과의 약속이기도 한데, 삼표그룹 안에서 재활용사업을 제2의 미래성장사업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자원재활용이지만 저는 창조의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꼭 건물을 지어올리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만이 창조는 아닙니다. 버려질 것에서 특별한 가치와 용도를 찾아내고 나아가 새로움을 더한다면 폐기물에서도 창조가 가능합니다.



이미 여건은 갖춰졌습니다. 아시다시피, 삼표그룹은 제철소와 제강사 공정 중 발생하는 각종 부산물과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철강부산물 사업과 슬래그를 건설기초소재로 대체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폐열을 활용하여 하수 및 폐수슬러지를 처리하는 사업과 건설폐기물을 수집, 운반하여 일괄 처리하는 건설폐기물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폐자원을 환경에 위해없이 재활용할 수 있는 시멘트까지 갖추었으니 이제는 이들 사업을 시너지 있게 수직화하고 적절하게 사업화하는 것만이 남았습니다. 이미 실력을 갖추었으니, 이를 시장에서 확인하는 일만 남은 셈입니다.

지금까지 최선의 삶을 살아왔다고 자부합니다. 삼표에서도 최고의 성과를 위해 나 자신을 채찍질하고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 멋진 미래를 만들어 나아갈 생각입니다. 몇몇한 한 사람의 삼표인으로 더욱 발전해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올 각시, 경례 보소

스물다섯 꽃다운 나이에 무뚝뚝한 경상도 사내에게 시집온 아내 경례. 결혼 전 남 부럽지 않게 살게 해주겠다고 큰소리쳤지만 고생만 시킨 것 같다. 늦게 귀가하는 날이 많아 맞벌이를 하면서도 '집안일은 여자 몫'이라며 미뤘었다. 그러던 지난 해 겨울, 당신 몸에서 신장암이 발견되고 그동안 얼마나 어리석은 삶을 살아왔는지,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지 깨닫게 됐다. 이제 몸을 회복하고 일터로 다시 나간 당신에게 그간의 마음을 전하고자 편지와 선물을 들고 포항의 고려요양병원으로 찾아갔다.



- 01 이종덕 부장이 아내 윤경례씨와 함께 포항 고려요양병원 벤치에서 환하게 미소 짓고 있다.
- 02 윤경례씨(오른쪽에서 세번째)가 직장 동료들과 함께 케이크를 나눠 먹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 03 요양병원에 찾아온 남편 이종덕 부장을 보고 아내 윤경례씨가 반가워하고 있다.
- 04 이 부장이 아내 윤경례씨에게 마음이 담긴 편지를 읽어주고 있다.
- 05 이 부장과 윤경례씨가 힘차게 웃음을 띄고 있다.
- 06 남편이 직장에 찾아올 것이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윤경례씨가 남편의 선물들을 보고 수줍게 웃고 있다.



사랑하는 올 각시

젊은 날 봉사동호회에서 우연찮게 만나 인연이 되어 살아온 지도 벌써 18년이 흘렀네. 그 세월은 우리에게 착하고 예쁜 큰딸 희연이와 든직한 아들 인우를 선물하고, 많은 즐거움과 슬픔의 흔적을 남기고 갔지.

지난해 11월, 결혼기념일 전날 건강검진 후 당신이 신장암 판정을 받은 순간, 역장이 무너지는 심정이었다. 한동안 끊었던 담배를 다시 입에 물고, 당신과 함께한 지난 18년을 되돌아 보았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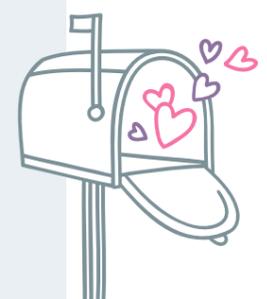
좋았던 추억도 있을 법 한데 왜 그렇게 당신을 힘들게 한 나날과 슬프게 한 나날들만 떠오르는지... 나로 인한 고된 삶이 병을 만들지는 않았는지 하는 죄책감을 느끼고 자책도 했어요.

천만다행으로 1기 판정을 받고, 4시간여의 수술 후 항암치료는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 아픈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의연하게 병을 받아들이고 힘든 수술도 잘 이겨낸 당신에게 감사하요. 무심한 듯 별일 아니라고 당신을 안심시켰지만 하늘에 계신 부모님께도 눈물 흘리며 감사 인사를 올렸어요. 3개월간의 요양을 마치고 직장에 다니는 당신의 뒷모습이 가끔은 애처로워 보인대요. 그래도 예전처럼 건강한 뒷모습이라 한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네.

이제는 더 이상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삽시다. 당신을 더 기쁘게, 더 즐겁게, 더 행복하게 하기 위해 노력하리다. 서로 몸 관리 잘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웃으며 지냈시다.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와 너무 기쁘요. 새로운 삶을 한 번 더 살게 됐다는 당신에게 이 한마디를 하고 싶소.

“경례야 사랑한다.
말 대가리 빨날 때까지 함께 해주소”



맛있는 발견

글·사진, 동양시멘트 제주지사 심광진 대리

보영반점 간짬뽕, 탕수육

보영반점은 제주도 3대 짬뽕집으로 꼽히며 67년에 문을 열어 50년 역사를 자랑한다. 오랜 전통의 음식점은 넓고 허름할 것이라는 편견은 금물! 넓은 홀에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음식 맛을 돋운다. 이곳의 주 메뉴는 '간짬뽕'이다. 간짬뽕은 국물이 없는 짬뽕인데 불맛이 감돌면서 매콤하다. 소스는 간장과 고추장을 적절히 섞은듯 하고 볶음 우동 맛도 나는 색다른 별미이다. 탕수육은 소스 향이 과하지 않으면서 적당히 달콤하다. 갓 튀겨 나와 뜨겁고 바삭한 탕수육은 내부의 쫄깃한 고기와 궁합이 환상적이다. 가격은 다소 비싸지만 주변 테이블을 둘러보면 대부분의 손님이 두 메뉴만 시켜 먹는다. 식사시간은 조금 피해가는 것이 좋다. 2시까지 만석인 경우가 많다.

영업시간 : 오전 11:00 ~ 오후 20:30(매월 둘째, 넷째 목요일 휴무)
주요메뉴 : 간짬뽕(7,500원), 탕수육(20,000원)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 1305-16
주차 : 인근 주차장
문의 : 064-796-2042

옥돔식당 보말칼국수

"가랑몰라 맛을 보사 알주" 말을 들어서는 모르고 직접 맛을 보면 안다는 제주도 방언이다. 제주도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한 음식 중 하나가 보말칼국수(보말국)이다. 보말은 제주도 바다 속 바위에 붙어 자라는 고동을 일컫는다. 보말칼국수는 일일이 손으로 알갱이를 까서 주물러 즙을 낸 뒤 미역을 넣고 끓이는, 정성이 많이 들어간 음식이다. 서귀포시 대정읍 모슬포항 근처에는 보말칼국수로 유명한 '옥돔식당'이 있다. 이곳은 <수요미식회>에서 소개한 맛집으로, 메뉴는 보말칼국수와 보말국 두 가지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표를 뽑고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다. 걸쭉한 국물에 유부, 파, 김이 곁들여 나온다. 바다향이 가득한 보말칼국수는 국물이 시원하면서도 감칠맛이 난다. 영업시간은 오후 4시까지인데 2시쯤 재료가 소진돼서 문을 닫는 경우도 간혹 있다.

영업시간 : 오전 11:00 ~ 오후 16:00
주요메뉴 : 보말칼국수(7,000원), 보말국(8,000원)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1067-23
주차 : 식당주변
문의 : 064-794-8833

앞벵디식당 멜국, 멜조림

제주공항 근처에 있는 앞벵디식당은 제주지사 직원들이 시원한 멜(멸치)국과 칼칼한 멜조림이 생각날 때 종종 찾는 곳이다. 멜은 제주에서 나는 생선에 가까운 큰 생멸치를 말한다. 멜국은 멸치의 내장과 머리를 제거한 후 배추 등 채소를 넣고 말갈게 끓인 국이다. 비리지 않고 시원한 국물 맛이 일품이다. 이곳은 노릇하게 구운 고등어 한 토막과 자박하게 끓인 강된장이 기본 상차림으로 나온다. 싱싱한 배춧잎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 한 숟가락 딱하니 올리고 강된장과 함께 씹을 싸입에 넣으면 산해진미가 부럽지 않다. 생선조림을 좋아하는 분께는 멜조림도 추천한다. 매콤하고 달달한 멜조림은 막걸리와도 환상의 궁합을 자랑한다. 운전 때문에 술이 부담스럽다면 밥을 비벼먹어도 좋다.

영업시간 : 오전 09:00 ~ 오후 21:00(연중무휴, 일요일은 14시까지)
주요메뉴 : 멜국(7,000원), 멜조림(15,000원)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314-90
주차 : 주차가능
문의 : 064-744-7942

“가랑몰라 맛을 보사 알주”

제주도는 국내 여름 휴가지로 가장 인기가 높다. 동남아에서나 봄직한 코발트 물빛, 깊고 우거진 천혜의 숲길 등 이국적인 풍경과 걷기 여행의 설렘이 존재한다.

또한 육지에서는 흔하지 않은 제주도의 별미(別味)가 유혹한다. 인공조미료(MSG) 듬뿍 들어간

짜개나 OO리아 햄버거로 한 끼를 때우지 말자. 제주도 본연의 맛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맛집 목록을 준비해 떠나는 것이 좋다. 제주도에는 동양시멘트 제주지사가 있다.

제주도로 출장오거나 여행 오는 사우들을 위해 현지 근무자가 추천하는 맛있는 식당을 소개한다.



신해조식당 우럭조림, 한치물회

신해조식당은 당일 잡은 생선을 주로 사용하는 식당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우럭조림이 일품이다. 이곳은 현지인들이 자주 찾는 맛집이다. 이곳의 우럭조림에는 무나 양파 없이 콩이 들어가는 것이 특징이다. 통통하고 쫄깃한 우럭살에 매콤한 양념이 어우러져 씹히는 질감이 아주 좋다. 더운 여름철에는 한치물회도 별미다. 예로부터 한치물회는 제주도에서 여름철에 냉국 대용으로 즐겨먹던 음식이다. 한치를 회로 떠서 무친 다음 차가운 물을 부어 먹는다 해서 '물회'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원래는 먹을 것이 마땅치 않던 무더운 여름에 된장 푼 물에 한치와 채소를 썰어 넣고 한데 섞어 말아서 먹던 구황식인데 지금은 별미인 향토음식으로 꼽힌다.

영업시간 : 오전 08:00 ~ 오후 21:00(매월 둘째, 넷째 화요일 정기휴무)
주요메뉴 : 우럭조림(30,000원), 한치물회(12,000원)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건입동 1325
주차 : 식당주변
문의 : 064-722-3338

신설오름 뭇국, 돔베고기

제주도에서는 해초의 한 종류인 모자반을 '뭇'이라 부른다. 모자반을 넣어 끓이는 뭇국은 제주도에서만 볼 수 있는 별미다. 뭇국의 육수는 돼지고기와 뼈는 물론이고 내장과 순대까지 삶아낸 국물을 사용한다. 육수에 모자반과 메밀가루를 넣어 끓이면 느끼함도 줄어들고 독특한 바다의 맛이 우러난다. 제주도에서는 흔레나 상례 등 집안 행사에 마을사람들이 십시일반 거드는 풍속이 있다. 과거에는 이런 행사 때 주로 돼지를 잡았는데, 생선이나 어패류 이외의 동물성 지방과 단백질을 섭취하기 힘들었던 제주 사람들이 귀한 돼지고기를 온 마을 사람들과 나눠먹고 나서 뭇국을 끓여 먹었다고 한다. 이곳을 찾는 대부분의 사람은 뭇국과 함께 돼지를 수육으로 삶아 도마 위에 담아낸 돔베고기를 주문한다.

영업시간 : 오전 11:00 ~ 오전 06:00(매월 둘째, 넷째 월요일 정기휴무)
주요메뉴 : 뭇국(6,000원), 돔베고기(20,000원)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도2동 409번지
주차 : 식당주변
문의 : 064-758-0143

대성아귀찜 아귀찜

함덕해수욕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먹음직스런 아귀찜을 소개한다. 이곳의 아귀찜은 말린 통아귀를 사용해 살이 부서지지 않고 식감이 쫄깃하다. 통아귀를 가위로 잘라서 콩나물과 잘 버무려 먹으면 좋다. 양념은 맵지 않고 순해서 어린 자녀들과 함께 먹을 수 있으며, 재료 본연의 맛과 향이 잘 느껴진다. 이곳은 관광객과 도민들에게 모두 인기 있는 맛집으로 재료가 떨어지면 시간과 상관없이 문을 닫는다. 방문 전에는 미리 전화를 하고 찾아가는 것이 좋다. 아귀와 콩나물을 다 먹고 나서 볶음밥도 주문해보자. 남은 양념에 참기름과 김을 솔솔 뿌려 섞어준다. 가격에 비해 양이 넉넉해서 서너 명이 충분히 먹을 수 있다.

영업시간 : 오전 10:30 ~ 오후 15:00(매주 월요일 정기휴일)
주요메뉴 : 아귀찜(45,000원)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3219-1
주차 : 주차가능
문의 : 064-784-0975

여행사진 공모전

열심히 일한 당신
신나게 즐겨라!

생각만 해도 가슴 설레는 여행. 사진만 봐도
행복한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는 여행.
〈삼표愛〉에서는 회사 임직원들이 다녀온
여행지의 아름다움과 행복감을 함께 나누고자
‘여행사진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은상] 동양시멘트 환경안전팀 왕태윤 대리

올해 3월 13일에 결혼을 하고 이탈리아로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이 사진은 피렌체에서 찍었는데 이날 바람이 참 많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볼 때면 그날의 바람과 따스함이 느껴지는 듯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내. 마주하고 있음에 늘 감사하며
항상 곁을 지켜주어 고맙습니다.



[은상] 삼표산업 성수영업소 공장영업과 정성엽 대리

지난해 1월, 아내와 함께 결혼 1주년 기념으로 몰디브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탁 트인 에메랄드빛 바다와 맑은 하늘. 평화로운
풍경의 몰디브는 제 인생 최고의 휴양지였습니다. 가끔 이 사진을
보며 여유롭고 아름다웠던 몰디브를 추억하곤 합니다.



[은상] 삼표이앤씨 연마유지보수팀 김기환 과장

결혼 후 4년간 아이가 생기지 않아 힘들어했던 우리 부부가 지난해 9월 하와이로
힐링 여행을 떠났습니다. 렌트카를 타고 목적지 없이 해변도로를 달리다 우연히
도착한 곳이 선셋비치였습니다. 이곳은 '서퍼들의 천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유명한데,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파도에 몸을 싣고 즐기는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여행
이후 쌍둥이 딸도 얻어서 우리 부부에게는 더 소중한 여행이 됐습니다.



[대상] 삼표산업 서부영업소 공장 영업과 윤지원 대리

2년 전 삼표산업으로 이직하면서 생긴 꿀맛 같은 2주간의 휴가 기간 동안 아내와 딸과 함께 꿈을
다녀왔습니다. 당시 세 살이었던 딸에게 이 사진을 보여주면 기특하게도 그때의 추억을 기억합니다.
이제 둘째도 생겼는데 같은 장소에서 두 딸과 함께 다시 한 번 사진을 찍어보고 싶습니다.



대상

금상



[동상] 네비엔 건축토목공사팀 이인호 사원

지난해 1월, 취업 전 스펙 쌓기예만 급급한 20대를 보내기
아쉬워 유럽 6개국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사진 속의 이곳은 스위스 취리히 도심입니다. 한강변 앞
아파트가 즐비한 한국과는 다르게 나지막한 건물들과
시계탑이 인상적인 곳이었습니다. 이제는 취업해서
해외여행이 쉽지 않겠지만 앞으로도 틈이 날 때마다
여행을 다니며 나만의 이야기를 쌓고 싶습니다.



[동상] 삼표산업 물탈기획팀 김현수 과장

우리 부부의 아이가 태어난 지 일년이 되던 날,
걸음마를 시작한 아이를 보고 엄마, 아빠는 그동안 미뤄왔던
전국 여행을 결심했습니다. 걱정 반, 기대 반으로 출발해 도착한
전라남도 담양 메타세콰이어 길. 걱정은 기쁨으로 바뀌고,
신나서 아장아장 걷는 아이의 모습에 세상을 다 가진 듯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시원아, 아빠랑 축구는 언제 할 거니!

동상



[동상] 삼표산업 RM2팀 전유연 사원

지난 4월, 20년을 함께 보낸 친구들과 지리산
등반을 했습니다. 대피소에서 짧은 단잠을 자고
칠후같이 어두운 새벽에 헤드랜턴에 생명을
의지한 채 천왕봉에 올랐습니다. 왕복 11시간이
걸렸고 '지리산 반달곰을 만나면 어찌지'하는
간장감도 있었기 때문에 정신적, 육체적 피로가
심했습니다. 그러다가 3대가 덕을 쌓아야 볼 수
있다는 천왕봉 일출을 봤고, 피로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친구들과 말없이 서로를
쳐다보고 웃기만 했지만 그때 그 미소만큼 진심이
느껴지는 대화는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한다
친구들아. 다음에는 한라산이!

[동상] 유니콘 아산공장 품질과 김주석 대리

올해 3월 장인어른 환갑을 맞아 대안으로
가족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사진은 스페인마을에
있는 철길입니다. 여기서 천등을 띄우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많은 여행객이 이곳에서
천등을 날립니다. 우리 가족은 '부모님이 100세가
될 때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자고 소원을 빌고
왔습니다. 역 주변에 먹거리 상점도 많아 한 번쯤
가 볼 만한 곳입니다.



[동상] 삼표이앤씨 제천공장 관리팀 최현호 사원

지난해 여름 '풍차의 나라' 네덜란드에 다녀왔습니다.
사진은 마을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킨더다이크(Kinderdijk)'라는 시골 마을입니다.
네덜란드에서 옛 풍차가 가장 많이 몰려 있는 지역답게
곳곳에서 풍차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1700년대에
만들어진 풍차임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바람 따라 날개를
돌리고 있을 정도로 보존이 잘 돼 있습니다. 자전거를
빌려 여행을 해서 마을 구석구석을 천천히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허리 디스크, 수술해야 합니까?

허리 통증에 대한 현대 의학의 과학적 이해는 매일매일 진화하고 있지만 일상생활을 붕괴시키는 요통의 고통 앞에 사람들은 쉽게 잘못된 치료법을 선택한다. 그렇지만 98%의 요통 환자는 수술 없이 완치될 수 있다.



< K씨의 사례 >

직장인 K씨(42세)는 3주 전부터 왼쪽 엉덩이에서 종아리로 이어지는 통증 때문에 회사 다니기가 지옥과 같다. 앉아있거나 누워있을 때는 견딜만한데 일어서기만 하면 허리가 아프고 왼쪽 다리가 당겨 걷기조차 힘들다. 전기가 오듯 찢릿찌릿하고 열차려를 받은 다음 날 허벅지 근육이 뭉치듯 옥신거린다. 일도 하기 싫고 즐기던 술자리도 힘들다. 침도 맞아보고 허리에 좋다는 운동도 해보지만 좋아지지는커녕 점점 더 심해진다. 허리 수술 후 오랫동안 고생하고 있는 외삼촌을 봤기 때문에 수술은 가능하면 피하고 싶은 마음이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

사실 허리 아픈 것이 처음은 아니다. 3년 전 지방 출장 후 다리는 아프지 않았지만 허리가 아파 고생했던 적이 있다. 당시 운동부족이라 생각해 헬스장에 가서 열심히 운동했더니 저절로 좋아졌다. 그런데 이번 허리 통증은 석 달 전 며칠 밤샘작업을 하고 나서 생겼다. 3년 전과 똑같이 허리 가운데가 빠근한 통증. 아침에 세수하려고 허리를 구부릴 때에 특히 더 아팠다. '그동안 또 운동을 소홀했구나'라고 후회하며 뒤통일으키기를 열심히 하던 중에 지금 겪고 있는 극심한 다리 통증이 생긴 것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허리디스크 치료, 그것을 알려주마

Q. K씨는 지금 왜 아픈 것인가?

A. 한마디로 디스크(추간판) 탈출증 때문에 생긴 좌골신경통이다. 디스크는 허리 뼈 사이에서 생기는 충격을 흡수하는 충격흡수 장치이다. 물렁뼈지만 한 덩어리의 무덤덤한 물렁뼈가 아니라 겉에는 단단한 껍질(섬유륜)이 싸고 있고 속에는 말랑말랑한 젤리(수핵)가 들어 있다. 디스크와 척추뼈가 붙는 면에는 '종판'이라는 판이 경계를 이루고 있다. 앉기와 서기, 걷기와 뛰기 등 허리에 크고 작은 충격이 끊임없이 생기더라도 디스크 덕분에 척추뼈와 물렁뼈가 망가지지 않는 것이다. 지금 상황은 K씨의 물방석(디스크)의 껍질(섬유륜)이 조금씩 찢어지다가 속에 있던 수핵이 밖으로 밀려 나온 것, 즉 탈출된 것이다.

Q. 디스크가 찢어져 내용물이 탈출됐는데 다리는 왜 아플까?

A. 수핵이 탈출되어 흘러나오면 디스크 바로 옆과 뒤에 있는 신경 뿌리에 묻어서 심한 신경 염증을 일으킨다. 허리 디스크는 이 신경 뿌리가 다리로 가는 신경의 뿌리이므로 다리 통증(좌골신경통)을 일으킨다.

Q. 멀쩡했던 디스크가 터져서 수핵이 흘러나왔다면 디스크에 구조적인 변화가 온 것인데 당연히 수술해서 원상복구를 해야 하지 않나? 외삼촌이 허리 수술 후 고생했다는 것만으로 비수술주의자가 되는 것은 너무 과한 반응이 아닌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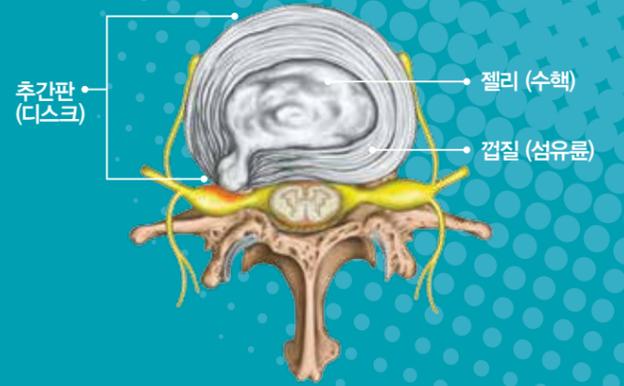
A. 수술을 통해 근본적으로 고치려면 터져 나온 수핵을 원래 자리로 밀어 넣고 터진 껍질(섬유륜)을 꿰매면 될 것이다. 그런데 아직은 흘러나온 수핵을 원래 자리로 넣을 방법도, 터진 부분을 꿰매 방법도 없다. 현재로서는 터져 나온 수핵과 찢어진 섬유륜을 같이 제거하는 방법이 최선이다. 이렇게 하면 신경 뿌리에 염증을 일으키고 신경을 누르는 물질이 제거되니까 좌골신경통을 없앨 수는 있지만 물방석 모양의 디스크가 더 크게 손상되어 수술 후 디스크 속에 남아있던 수핵이 다시 밀려 나오는 '디스크 탈출증 재발'이 생긴다. 재발을 막기 위해 디스크 물질을 제거하면서 디스크 속에 남아 있는 수핵을 박박 긁어내는 경우도 많은데 그렇게 하면 당장 디스크 탈출 재발 우려는 낮아지지만 디스크의 원래 기능인 '충격 흡수'를 못해 장기적으로는 더 해롭다.

Q. 그럼 어떤 방법이 있나?

A. 좌골신경통의 원인인 신경 뿌리의 염증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사라진다.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어 2~3주 이내에 염증이 줄거나 6개월 이상 심하게 아픈 후 사라지기도 한다. 그럴 때는 신경 뿌리 주변에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거나 지속적으로 소염제를 복용하면 도움이 된다.

Q. 신경 염증이 그렇게 낫는다고 치자. 하지만 탈출된 덩어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A. 신경 뿌리의 염증이 사라지면 튀어 나온 디스크가 신경을 눌러도 별로 아프지 않고 디스크를 괴롭히는 행동을 다시 하지 않는다면 탈출 부분도 점점 줄어들다.



Q. 찢어졌다는 섬유륜은 어쩌고?

A. 찢어진 섬유륜을 빨리 아물게 할 방법은 아직 없다. 최선의 방법은 칼에 베인 손가락 상처가 서서히 아물듯이 더는 찢어지지 않게 조심하는 것이다.

Q. 물렁뼈가 아문다는 말은 처음 듣는데?

A. 피부의 상처보다는 훨씬 느리지만 분명히 아물어 들어간다. 양을 대상으로 한 실험 결과를 보면 1년 반 정도 지나면 아물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다. 실험한 양이 2살짜리였고 사람으로 따지면 11세 어린이에 해당하므로 K씨는 그보다 더 오래 걸리지만 분명히 아물 것이다.

Q. K씨가 비수술주의자가 된 것이 정당하다는 뜻인가?

A. 그렇다. 척추 수술 후 고생하는 외삼촌 때문에 생긴 트라우마로 K씨가 비수술주의자가 되기는 했지만 과학적으로도 충분히 근거가 있다. 디스크 탈출 좌골신경통은 신경염증을 잘 치료하고 디스크 재생상을 주의하면 저절로 완치되는 경우가 많다. 성급하게 칼을 대는 것보다 장기적으로 훨씬 더 유리한 치료 방법이다.

Q. 그렇다면 허리 디스크 탈출증 수술은 모두 잘못된 과잉 진료라는 뜻인가?

A. 그렇지 않다. 양쪽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대소변 보기가 힘든 경우에는 48시간 이내에 반드시 수술해야 한다. 그리고 모든 비수술적 치료를 다 했는데도 통증 해결이 안 되면 수술해야 할 때가 있는데 이때는 디스크가 아물도록 최선을 다하면서 충분히 기다리는 게 중요하다. 전문가마다 8주, 3~6개월 등 제안하는 시한이 다르지만 근력 약화가 심해지지 않고 통증이 줄어들다면 6개월이나 2년 이상까지 기다려도 무방하다.

리우 올림픽 태극전사, 이들을 막을 순 없다

어느 해보다 뜨거운 열기가 예상되는 8월이다. 122년 만에 최초로 남아메리카에서 개최하는 리우 올림픽이 열리기 때문이다!



리우 올림픽, 금 10개, 톱 10이 목표

2016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개막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남미에서 최초로 열리는 리우 올림픽은 오는 8월 5일(이하 현지 시간)에 개막해 21일까지 17일간 열전을 펼친다. 한국대표팀의 목표는 '10-10'이다. 금메달 10개 이상을 획득해 4회 대회 연속 톱 10에 오르는 것이다. 한국은 1984년 LA 올림픽에서 처음으로 종합순위 10위에 오른 뒤 1988년 서울 올림픽에서 역대 최고 성적인 4위를 차지했다. 2000년 시드니 올림픽(12위)에서만 10위권 밖으로 밀렸을 뿐 2004년 아테네 올림픽 이후 3회 연속 10위 안에 올랐다. 4년 전 런던 올림픽에서는 5위를 차지, 원정 올림픽 중 가장 좋은 성적을 거뒀다. 네덜란드 스포츠 전문 통계사이트 '인포스트라다'는 한국이 금메달 12개, 은메달 5개, 동메달 11개를 획득해 일본에 이어 종합순위 8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인포스트라다가 예상한 금메달리스트는 남녀 양궁 개인전 김우진(청주시청)과 기보배(광주광역시청), 남녀 양궁 단체전, 그리고 사격의 진종오(KT), 태권도 이대훈(한국가스공사), 배드민턴 남자복식의 이용대(삼성전기)-유연성(수원시청) 등이다. 가장 관심을 끄는 선수는 사격의 간판스타 진종오다. 진종오는 2008 베이징, 2012 런던 대회 때 남자 50m 권총에서 2회 연속 금메달을 따냈다. 리우 올림픽에



글. 한용섭 OSEN 기자



01

02

01 올림픽 3연패에 도전하는 사격의 진종오 선수.
02 배드민턴 남자복식의 이용대·유연성 조는 세계랭킹 1위로 리우 올림픽 금메달이 유력하다.
03 태권도의 이대훈은 4년 전 런던 올림픽에서 은메달에 머물렀던 한을 풀겠다는 각오다.

서는 한국 선수 최초로 올림픽 3연속 우승을 정조준하고 있다. 동·하계 올림픽에서 한국은 총 107개 금메달을 따냈다. 그 중 개인 종목 3연패를 이룬 선수는 한 명도 없다. 진종오는 지난 4월 리우 올림픽 슈팅센터에서 열린 프레 올림픽 대회 50m 권총에서 은메달을 따며 현지 적응도 마쳤다. 사격연맹 관계자는 "사격장에도 모기가 많더라. 모기와와의 싸움이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양궁은 대표적인 한국의 금메달 발이다. 올림픽 금메달보다 국가대표 선발전이 더 어렵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 선수들끼리 경쟁이 치열하다. 런던 올림픽에서 남자 개인전 금메달을 차지한 오진혁이 탈락할 정도다. 남자부는 4년 전에는 탈락했던 김우진을 비롯해 이승윤(코오롱), 구본찬(현대제철)이 티켓을 거머쥐었다. 여자부는 세계랭킹 1위 최미선(광주여대)과 기보배, 장혜진(내이)이 국가대표 선발전을 통과했다. 기보

배는 한국 선수로는 사상 첫 올림픽 개인전 2연패 그리고 단체전 8연패에 도전한다. 한국 태권도의 간판 이대훈은 그랜드슬램에 재도전할 기회를 잡았다. 이대훈은 4년 전 런던 올림픽에서 은메달에 머물러 그랜드슬램을 이루지 못했다. 런던 올림픽 이후 2013년 세계선수권, 2014년 아시아선수권, 아시안게임에서 모두 2회 연속 금메달을 따냈다. 이제 남은 것은 올림픽 무대뿐이다.

런던 올림픽에서 남자 58kg급에 나섰던 이대훈은 리우 올림픽에서 한 체급을 올린 68kg급에 도전한다. 63kg급인 이대훈에게 체중감량이 필요 없는 68kg급이 낫다는 판단이다. 배드민턴 남자복식 세계랭킹 1위인 이용대-유연성은 강력한 금메달 후보다. 한국 배드민턴 남자 복식은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박주봉-김문수,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 김동문-하태권이 금메달을 땀던 전통적인 효자 종목이다. 런던 올림픽에서 동메달에 그친 이용대는 유연성과 짝을 이뤄 올해 중국 그랑프리 골드와 아시아선수권, 인도네시아 오픈 등 주요 국제대회에서 금메달을 따며 리우 올림픽을 정조준하고 있다. 배드민턴은 혼합복식 세계랭킹 2위 고성현(김천시청)-김하나(삼성전기)도 중국 선수들과 금메달 경쟁을 벌일 전망이다.

이 밖에 남자 펜싱 사브르의 일인자 구본길(국민체육진흥공단) 등 런던에서 파란을 몰고 온 펜싱 대표팀은 다시 한 번 영광을 재현하겠다는 각오다. 한국 레슬링의 쌍두마차 김현우(삼성생명)와 류한수(삼성생명), 유도 차세대 스타 안창림(용인대), 김원진(용인대) 등도 금메달을 목표로 한다.

'리듬체조 요정' 손연재(연세대)는 한국 리듬체조 사상 첫 올림픽 메달에 도전한다. 4년 전 런던 올림픽에서 5위를 한 손연재는 한국 리듬체조의 최고 성적이자 아시아인 최고 성적이기도 했다. 지난 4년간 손연재는 인천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차지하는 등 국제체조연맹(FIG) 주관 월드컵 시리즈에서 꾸준히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며 세계적인 선수 대열에 합류했다. 손연재는 마지막 올림픽이 될 리우 올림픽에서 동메달에 도전한다.

이들을 넘어야 올림픽 메달을 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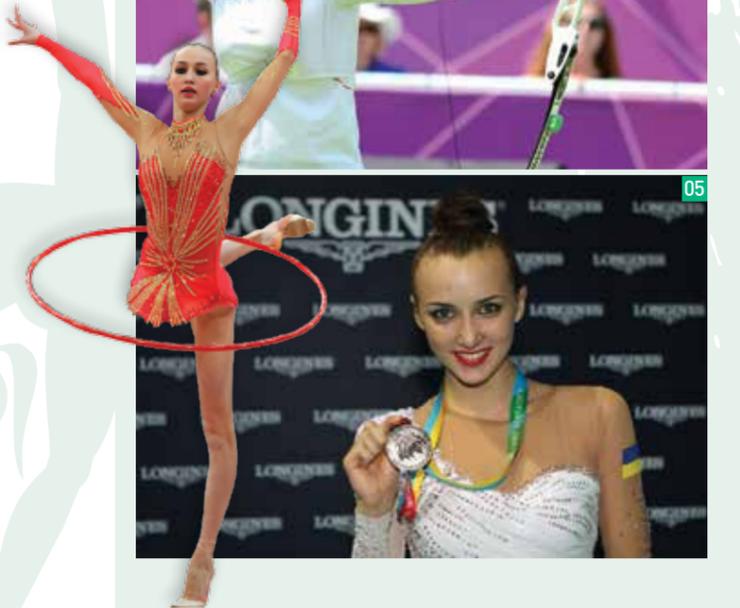
진종오가 한국 선수 첫 3연패를 달성하려면 만만치 않은 경쟁자들을 넘어야 한다. 사격은 당일 컨디션이 중요한 종목. 갑자기 복병이 나타날 수도 있다. 지난 4월 프레 올림픽에서는 올렉오멜추크(우크라이나)가 금메달, 진종오는 은메달이었다. 카레라 파블로(스페인), 라이지투(인도) 그리고 중국의 왕즈웨이, 마자이제, 팡웨이 등도 경쟁 대상이다. 이대훈이 출전하는 남자 68kg급은 강호들이 즐비한 격

전지다. 올림픽 2연패에 도전하는 세르벳 타제쿨(터키)을 비롯해 알렉세이 데니센코(러시아), 사울 구티에레스(멕시코), 자우아드야차(벨기에) 그리고 4년 전 이대훈을 꺾었던 호엘 곤살레스 보이냐(스페인)까지 출전한다. 이용대-유연성은 헨드라 세티아완-모하메드 아흐산(2위, 인도네시아), 동료 김기정-김사랑(3위), 중국의 장난-푸하이핑(4위), 차이 비아오-홍웨이(5위), 런던 올림픽 4강에서 졌던 마티아스 보에-카르스텐 모겐센(9위, 덴마크) 등의 도전을 받게 된다. 손연재의 가장 강력한 메달 경쟁자는 간나 리자트리노바(우크라이나)다. 세계랭킹 1·2위를 다투는 러시아의 야나 쿠드랍체바와 마르가리타 마문이 금, 은메달을 차지할 게 확실시된다. 손연재는 지난 5일 스페인에서 열린 2016 FIG 리듬체조 7차 월드컵에서 리자트리노바에게 밀려 4위에 머물렀다. 런던 올림픽에서 10위였던 리자트리노바는 2013년 세계선수권에서 개인종합 은메달을 차지하며 성장했다. 당시 손연재는 5위. 멜리타나 스타누타(벨라루스)도 경계해야 한다. 손연재는 지난해 7월 광주에서 열린 하계 유니버시아드에서 리자트리노바와 스타누타를 모두 제치고 금메달을 차지했다. 리우 올림픽에서도 이들을 꺾어야 동메달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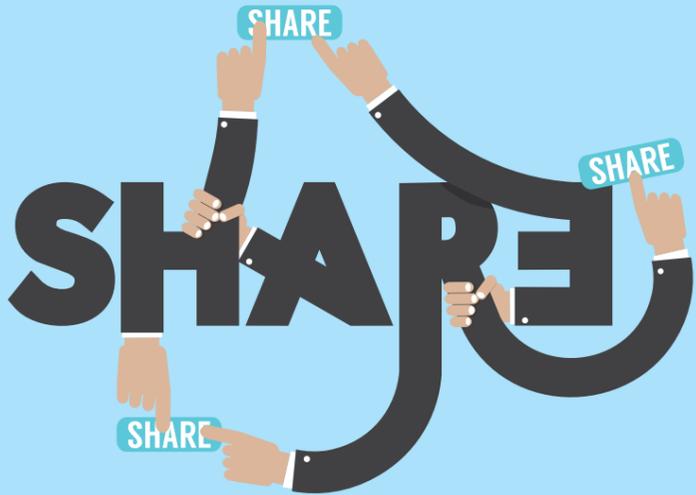
04 여자양궁의 기보배는 사상 첫 올림픽 개인전 2연패에 도전한다.
05 손연재와 리우 올림픽 동메달을 다툰 것으로 예상되는 간나 리자트리노바.



04



05



사지 않고 빌려 쓰니 가벼워졌다

아무리 절약해도 최소한의 소비는 어쩔 수 없다. 특히 가끔 쓰는 물건이 골치다. 사려니 돈이 아깝고 포기하자니 불편하다. 이럴 때는 저렴하게 물건을 빌려 쓰는 ‘공유경제(Sharing Economy)’가 가장 현명한 해결 방법이다.

장기 불황과 불안한 미래에 가계 소비를 줄이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가계의 평균 소비성향(소득 대비 소비 비율)은 72.1%를 기록했다.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3년 이래 최저치다. 살림을 극도로 줄여 단순한 생활을 추구하는 ‘미니멀리즘’까지 유행할 정도이니 얼마나 소비가 위축됐는지 짐작할 만하다. 공유경제는 2000년대 후반 자신의 물건을 다른 이들과 공유하는 개념으로 출발해, 오늘날에는 다양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차를 나눠 쓰는 ‘우버’, 빈방을 공유하는 ‘에어비앤비’ 등이 대표적이다.

자동차부터 주차공간까지 팔방미인

자동차는 대표적 사치재로 여겨지나, 종종 필수재가 된다. 예를 들면 무거운 짐을 옮길 때나 여럿이 여행을 갈 때면 자동차가 절실하다. 이럴 때 ‘그린카’, ‘쏘카’, ‘씨티카’, ‘유카’ 등 공유경제 차량을 이용하면 싸고 편리하다. 빌리는 시간이 하루 단위로 렌터카와 달리 최소 10분 단위라 경제적이다. 차종도 경차부터 승합차, 고급 수입차까지 다양하다.

예컨대 그린카에서 경차를 빌리려면 우선 앱으로 차종과 시간, 차고지를 예약한다. 차고지에 가서 앱으로 차 문을 열고 이용한다. 이용이 끝나고 차를 반납하면 미리 등록해둔 신용카드로 자동 결제된다. 요금은 경차 기준으로 10분 대여료가 790~1,710원이고, 주행요금은 km당 140~160원이다. 렌터카처럼 연료를 채울 필요는 없다. 쿠폰과 할인시간 등을 활용하면 최대 80%까지 요금이 저렴해진다.

운전하다 보면 주차로 고민할 때가 많다. 주차공간이 없어 길가에 잠깐 차를 정차했다가 딱지를 떼거나 차가 견인돼 낭패를 보기도 한다. 반대로 낮에는 종일 비어 있는 거주자 우선주차장이 적지 않다. ‘모두의 주차장’ 앱을 쓰면 서로 좋다. 내 주차장을 싸게 빌려주고, 가까운 주차장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주차장을 임차하고 적합한 포인트는 다른 주차장을 이용할 때 쓸 수 있다. 지도를 통해 가장 저렴한 주차장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모두의 주차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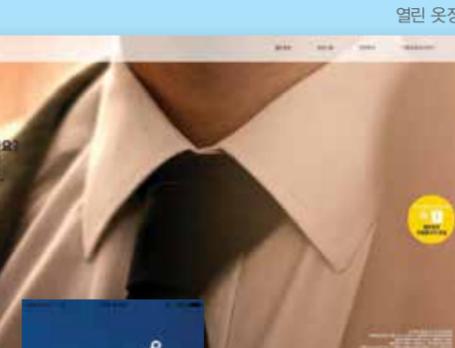
유카

그린카



지식을 공유한다

책장 한구석 먼지만 수북이 쌓인 책들. 적잖은 자리를 차지하지만, 나중에 또 읽을까 싶어 버리기 아깝다면 ‘국민도서관 책꽂이’에 맡겨보자. 기부가 아닌 기증이기에 원하면 언제든지 돌려받는다. 왕복 택배비 7,000원만 내면 자신의 책은 물론 다른 회원의 책도 최대 15권까지 2개월 동안 마음껏 이용할 수 있다. 책을 안 맡겨도 4만 3,000여 권에 이르는 장서를 언제든지 저렴하게 빌려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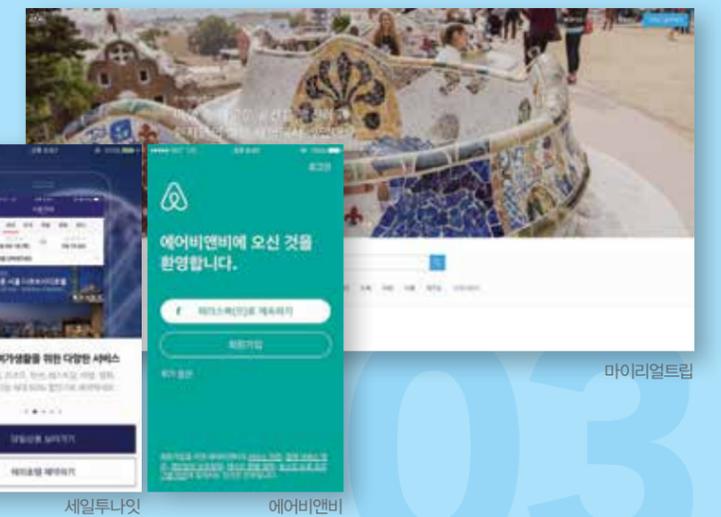
열린 옷장



쏘시오

주머니는 가볍게 실속을 챙기자

사진촬영, 면접 등 구직자들은 정장 입을 일이 수시로 생기지만 수십만 원대에 이르는 정장 구매비는 부담스러운 수밖에 없다. 사회적기업 ‘열린옷장’에 가면 그런 고민을 단박에 해결할 수 있다. 그럴듯한 정장과 와이셔츠, 넥타이, 구두까지 3박 4일간 빌리는 비용은 약 3만 원. 모두 깨끗하게 손질돼 있어 신상품이나 진배없다. 유모차, 캠핑장비, 망원렌즈, 침구청소기 등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상당히 가격이 비싸고 특정한 시기에만 필요하다는 점이다. ‘쏘시오’는 이런 물건을 공유하는 앱 장터이다. 대여비는 회원이 직접 정하는데 큰 부담 없는 수준에서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다. 인기 있는 유아 장난감의 경우 하루 대여료가 1,000~5,000원이다. 업체에서 갖고 있는 명품 음향기기, 제면기, 액션캠, 커피머신 등도 대여할 수 있다. 수시로 열리는 기획전과 이벤트 참여로 대여 시 필요한 포인트를 무료로 얻을 수 있다.



세일투나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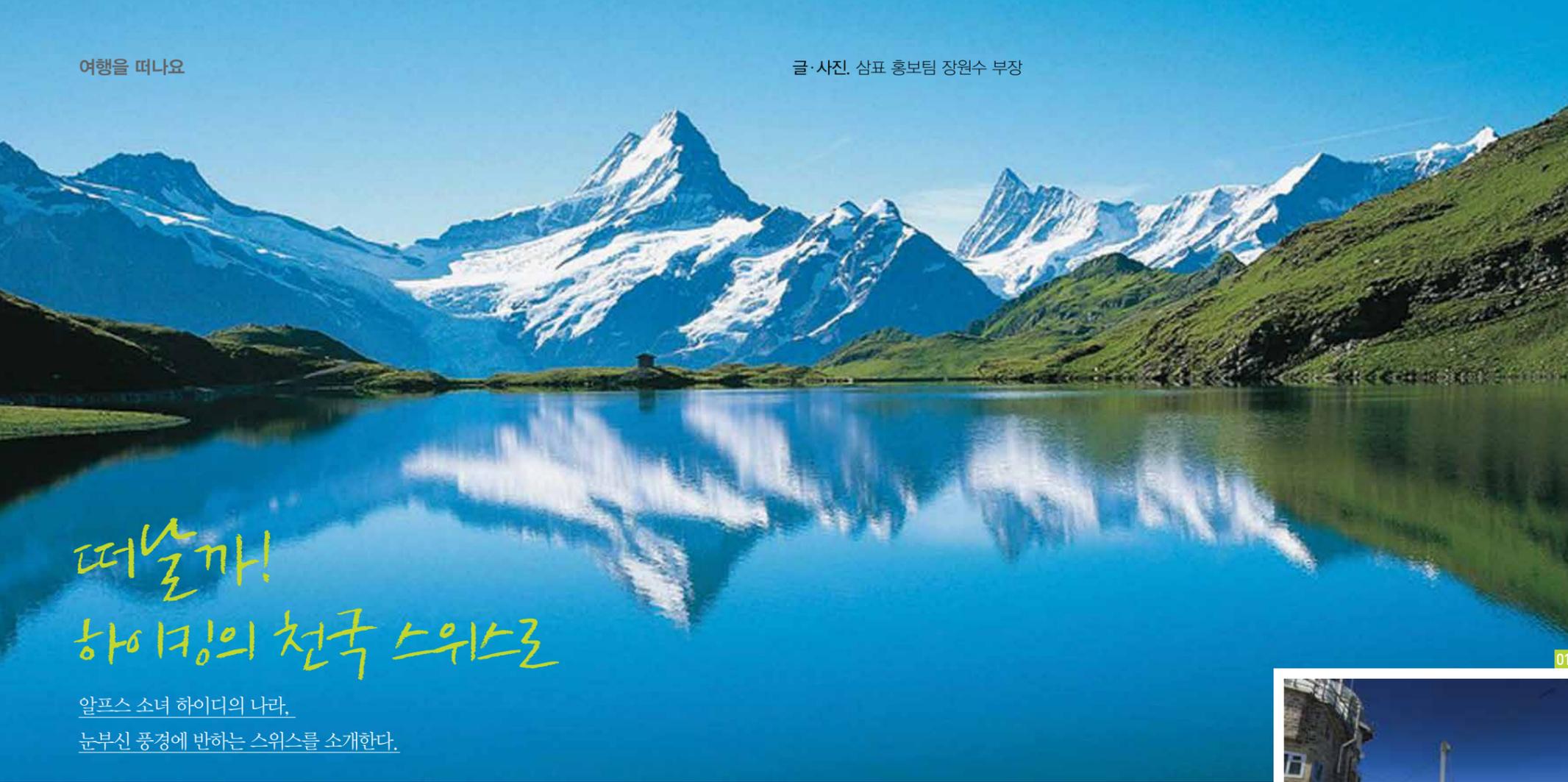
에어비앤비

마이리얼트립

경제적인 여행을 위한 꿀팁

적은 비용으로 쇼핑 강매 없이 가이드가 딸린 자유여행을 즐기고 싶다면? ‘마이리얼트립’은 전문가의 식견을 갖춘 가이드와 여행객을 연결하는 맞춤형 여행사다.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둘러보고 싶다면 회사가 검증한 스탠퍼드대 학생이, 브로드웨이 순회를 원한다면 뮤지컬 배우가 가이드를 해준다. 세계 214개 도시에 1,400여 개의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비행기표와 기차표, 호텔 숙박, 외식, 공연 등은 안 팔리면 그대로 가치가 사라지는 상품 이기에 판매 종료시각이 임박했거나 예약이 취소되면 할인 폭이 커진다. 문제는 이런 상품을 일일이 검색해 구매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세일투나잇’ ‘타임티켓’ 등 타임커머스 앱은 이런 상품들을 모아서 보여준다. 할인 폭이 30~80%에 달해 절반 고르면 뜻밖의 황재를 할 수 있다. 다만, 타임커머스의 특성상 상품 대부분이 당일애 사서 그날 바로 써야 한다.

숙박공유 서비스인 ‘에어비앤비’는 가장 널리 알려져 있으며 지금도 확대일로에 있다. 집에 남는 방이 있거나 집 전체가 비는 기간이 있는 경우 필요한 사람에게 단기간 빌려주도록 중개해주는 서비스다. 현재 190개국 3만 4,000개 도시에서 150만 개 이상의 숙소 목록을 갖고 있다. 여행자 입장에서 저렴한 숙박이 가능하고, 현지 생활을 경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주인 입장에서 별도의 이익을 얻을 수 있어 부업으로 활용할 수 있다. 집을 빌려주고 싶은 주인은 에어비앤비 홈페이지와 스마트 앱을 통해 집을 게재한다. 요금은 주인이 정할 수 있으며 에어비앤비는 예약 중개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다.



떠날까! 하이킹의 천국 스위스로

알프스 소녀 하이디의 나라,
눈부신 풍경에 반하는 스위스를 소개한다.

유럽의 지붕 '융프라우'

스위스는 유럽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광을 지니고 있는 나라다. 스위스 하면 가장 먼저 연상되는 이미지는 '알프스'다. 동서로 1,200km, 남북으로 200km에 걸쳐 해발 4,000m급 만년설의 연봉(連峰)과 빙하가 둘러싸고 있다. 그 알프스를 보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 수많은 여행객이 스위스를 찾는다. 스위스 알프스를 대표하는 명소는 일 년에 600만 명이 찾는 '유럽의 지붕'이라 불리는 융프라우(해발 4,158m)다. 융프라우를 가기 위해서는 인터라켄에서 산악열차를 타야 한다. 소요시간은 대략 2시간 30분가량. 4월부터 10월까지의 30분 간격, 그 외는 1시간 간격으로 출발한다. 중간역인 그린델발트나 라우터브룬넨까지는 스위스 패스로 무료로 갈 수 있지만, 그 위 산악열차는 따로 요금을 지급해야 한다. 가격은 204프랑(약 25만 원). 스위스 패스를 제시하면 122프랑(약 15만 원)으로 할인해 준다.

'융프라우'에 올라 시간을 걷다

인터라켄에는 시내를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에 각각 하나씩 두 개의 기차역이 있다. 서쪽에 있는 인터라켄 웨스트역은 도시의 관문 역할을, 동쪽에 있는 인터라켄 오스트역은 알프스로 향하는 관문 역할을 한다. 오스트역에서 기차에 올랐다. 기

차 안은 융프라우로 가기 위해 전 세계에서 온 각양각색의 여행객들로 북적였다. 기차에 타자마자 창가 자리로 몸을 던졌다. 창 밖으로 웅장한 자태의 융프라우가 보였다. 그 옆으로 뒤편, 아이거가 정수리에 하얀 눈을 살짝 엮은 채 위풍당당하게 솟아 있다. 검은색의 암벽과 산을 감싸고 있는 흰 눈이 빛어내는 산세에 몸이 움츠러진다. 40분이 채 안 돼 그린델발트(1,034m)에 도착했다. 겨울철이면 아스팔트를 제외하곤 모든 곳이 스키장이 되는 곳이다. 아래로 고요한 산간마을이 보이고 그 앞에 아이거 북벽이 버티고 있다. 여기서 기차를 갈아타고 클라이네샤이텍(2,061m)으로 향했다. 기차길 옆으로 소들이 풀을 뜯고 있는 한가로운 초지가 펼쳐져 있다. 달력이나 엽서에서 늘 봐왔던 바로 그 모습이다.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다. 거친 숨을 내뿔으며 산을 오르던 기차가 클라이네샤이텍에 도착했다. 다시 한 번 더 기차를 갈아탔다. 여기에서 융프라우요흐까지는 산악철도로 간다. 처음 2km는 산악지역을, 그 이후에는 뒤편, 아이거를 관통하는 가파른 터



01 바호알프 호수는 산과 하늘을 품고 있다. 엽서에서나 봤을 그림 같은 풍경이다. 호수의 물은 산에서 내려오는 빙하수와 비로 만들어졌다고 한다. 손을 담갔는데 아주 차가웠다.
02 스위스의 전 지역을 빈틈없이 이어주는 철도는 세계적으로 그 명성이 자자하다.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은 융프라우 철도다. 산악열차를 타고 해발 4,000m 고지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감동 그 자체다.



03 융프라우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기차역이다. '유럽의 꼭대기'라는 표현만큼 알프스 고봉을 가장 가까이서 마주할 수 있다. 융프라우는 2002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됐다.
04 융프라우 스프링스 전망대 레스토랑에 가면 한국 컵라면을 먹을 수 있다. 스위스 산꼭대기에서 먹는 얼큰한 라면 맛은 상상 그 이상이다. 그렇지만 뜨거운 물과 젓가락까지 돈을 주고 사야 하니 망설여졌다.

널을 통해 오른다. 중간에 암반 속 아이거반트역과 아이스메어역에 정차하는데, 여기에 전망대가 있다. 아이거반트에서는 그린델발트와 클라이네샤이텍, 툰 호수 등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다. 아이스메어에서는 드넓게 펼쳐진 빙하와 암벽들을 감상할 수 있다. 긴 터널을 지나고서야 유럽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역사(驛舍)인 융프라우요흐(3,454m)로 접어들었다.

이 터널은 120년 전인 1896년에 공사가 시작됐다. 당시 아이거의 암반을 뚫고 뒤편 히 바위 속을 뚫고 융프라우요흐까지 오르는 공사설계에 대해 사람들은 '미친 짓'이라고 비난했다. 스위스 의회에서조차 찬반으로 엇갈려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우여곡절 끝에 설계대로 공사는 결정됐지만, 이 과정 역시 순탄치 않았다. 혹한·강설·기압 등 악조건은 공사를 힘들게 했다. 거기다 붕괴사고가 잇따랐고 공사비 조달마저 지연됐다. 애초 7년 예정이던 공사 기간은 16년으로 늘어났다. 1912년 스위스 독립기념일인 8월 1일에 역사적인 개통식이 열렸다.

융프라우요흐 위쪽에는 스프링스전망대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 3,571m로 유럽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전망대답게 '유럽의 꼭대기(Top of Europe)'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문구 앞에는 기념사진을 찍으려는 사람들로 긴 대기 줄이 생겼다. 미니바에서는 우리나라 컵라면을 팔고 있다. 융프라우 철도 할인쿠폰을 가져 가면 공짜로 컵라면을 준다. 이렇게 해서 한국인이 먹는 컵라면이 매년 6만 개라고 한다. 다른 나라 관광객은 개당 7.8프랑(약 9,300원)을 주고 사야 한다. 대신 뜨거운 물과 나무젓가락은 따로 구매해야 한다. 연인들은 나무젓가락을 하나만 사서 반으로 부러뜨려 사용한다. 여기저기서 한국말이 들린다. 유럽여행 패키지 코스에 스위스 융프라우는 무조건 들어간다고 하더니, 헛말이 아니었다. 뜨거운 국



01

물로 배를 채우고 융프라우요흐 우체국에 들렀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우체국에서 저 먼 곳에 있는 '그 사람'에게 편지를 띄운다. 인터넷으로 이메일을 보낼 수도 있지만, 굳이 편을 들어 또박또박 백지를 채운다. 융프라우 스탬프가 찍힌 엽서를 선물하고 싶어서이다.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알프스는 그야말로 '빙하의 바다'다. 전망대는 사방이 유리로 되어 있어 360도 조망할 수 있다. 문을 열고 야외 테라스로 나갔다. 두껍게 쌓인 눈발 위에서 스키나 눈썰매, 개썰매를 탈 수 있다. 사람들은 눈싸움을 하거나 눈발 위를 텅굴며 한여름에 만나는 겨울을 마음껏 누린다. 산세를 제대로 감상하기 위해 얼음 궁전을 지나 플라토 전망대로 나갔다. 얼음 궁전은 사람이 다닐 수 있을 정도 크기로 터널을 뚫고 그 안에 얼음조각들을 전시했다. 얼음조각들이 많지는 않지만, 빙하 속에 굴을 파고 들어앉았다는 것만으로도 신비롭기 짝이 없다. 전망대에 서면 융프라우와 22km까지 뻗은 알레치 빙하가 눈앞에 펼쳐진다. 알레치 빙하는 유럽에서 가장 긴 빙하로 독일의 흑림지대까지 뻗어 있다. 만년설을 밟으며 빙하 트레킹(도보)을 즐기는 것도 좋다. 트레킹은 원히 산장까지 이어지는 데 두세 시간이면 충분하다.

융프라우요흐에서 내려가는 길은 산악열차를 이용하지 않기로 했다. 산악열차를 타고 내려오다가 아이거글레처역(2,320m)에서 내려서 알피글렌(1,615m)까지 걸었다. 융프라우 일대는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하이킹 코스가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다. 개개인 취향과 난이도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하이



02

01 인터라켄을 다시 방문한다면 반드시 패러글라이딩에 도전해보고 싶다. 날씨가 좋은 봄·가을이 되면 전 세계에서 온 패러글라이더들이 인터라켄의 하늘을 누비면서 색다른 재미를 즐긴다.

02 수직으로 솟아난 아이거 북벽 바로 밑으로 난 길을 따라 내려오는 융프라우 '아이거 트레일' 하이킹 코스. 60여 명 산사람들의 목숨을 잇어간 아이거 북벽의 깎아지른 절벽을 보고 아찔했다.

킹 코스만도 무려 70개가 넘는다. 아이거글레처에서 알피글렌까지의 36번 하이킹 코스는 일명 '아이거 트레일'이라고 한다. 수직으로 깎아지른 아이거 북벽을 오른편에 끼고, 왼쪽으로는 산 아래로 펼쳐진 초원을 내려다보며 3시간 동안 걷는다. 웅장한 아이거 북벽을 배경으로 내려오는 코스로 북벽을 정복한 등반가와 불운하게 실패한 산악인의 수많은 이야기가 새겨져 있다.

하이킹 길은 길게 둘러 있지 않고 산 옆구리를 잘라 직행한다. 나무 없는 언덕이라 탁 트였지만, 그렇다고 부드러운 흙길은 아니다. 자갈과 군데군데 녹지 않는 눈, 그리고 소들의 배설물이 길을 차지하고 있다. 길은 사람 두세 사람이 겨우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좁지만, 옆으로 비켜나도 크게 위험하지는 않다. 이 길의

모미는 북적북적하지 않으면서 자연과 내가 하나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는다는 점이다. 터벅터벅 내려가는 길에 상념은 사라지고 머리는 비워진다. 이 코스가 무리라고 생각되면 아이거글레처역에서 클라이네사이텍까지 걸어도 된다. 이 길은 '아이거 워크'로 불리며 비교적 완만한 내리막 37번 코스로 거리는 3km에 불과하다. 시간은 대략 1시간 정도 걸린다. 유럽 최고봉이라는 융프라우를 뒤로하고 내려오는 코스로 침엽수는 보이지 않고 끝없이 펼쳐진 초원 위에 구절양장(九折羊腸) 같은 구불구불한 길이 이어진다. 중간중간 발이 저절로 멈춰질 정도로 이름 없는 들꽃과 야생화가 지천이다. 클라이네사이텍에서는 알피글렌까지 내려가는 기차길을 따라 하이킹을 하거나, 아니면 반대편 역인 벵엔알프까지 계속 하이킹을 할 수 있다.

야생화·초원·눈 '액자 없는 그림' 속으로

융프라우 하면 누구나 설원이 펼쳐진 고봉을 떠올린다. 그러나 현지인들이 백미(白眉)로 꼽는 것은 하이킹이다. 이 지역엔 만년설로 덮인 3,000m 이상의 고봉들 아래로 넓은 고원지대와 협곡, 분지, 빙하지대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다. 그래서 융프라우 하이킹 코스는 제각각 느낌이 다르다. 하나같이 매력이 넘치지만 그중에서 피르스트(2,168m)에서 바흐알프 호수(2,265m)까지의 코스를 최고로 친다. 이곳의 아름다움은 액자에 걸린 한 폭의 그림에 가깝다. 초원 위에 젖소가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으며 띄엄띄엄 놓여 있는 농가들은 목가적 분위기를 고취시킨다. 피르스트는 융프라우 지역 가장 서쪽에 있다. 그린델발트에서 케이블카를 타고 30분가량 올라가야 한다. 케이블카에서 내려 호수까지는 50분 정도 걸린다. 목동이 양 수십 마리를 끌고 이리저리 옮겨 다닐 수 있을 정도로 길은 완만하다. 산길 양옆 초원에는 노랑, 보라, 빨강 등 다양한 색깔의 야생화가 피어 트레커의 발걸음을 가볍게 해준다. 시원한 바람과 함께 호수까지 길이 굽이굽이 이어져 있다.

길이 끝나는 지점에서 코너를 돌자 거짓말처럼 바흐알프 호수가 나타났다. 바흐알프 호수는 먼 곳에서 볼 때는 하나의 호수 같다. 가까이 가면 2개로 나뉘어 자리 잡고 있는데, 물빛도 달랐다. 하늘과 산이 호수에 비치는 바람에 좌우, 상하로 데칼코마니를 이뤘다. 깨끗한 수면에 비치는 만년설의 웅장한 자태를 보자 자연의 경이로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어느 여행객의 '죽기 전에 꼭 봐야 할 곳'이라는 말에 절로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일반적인 트레킹은 여기에서 왔던 길을 되돌아간다. 피르스트에서 내려갈 때는 케이블카 대신 피르스트 플라이어를 탄다. 안전장치를 한 채 줄에 매달려 슈렉펠트(1,955m)까지 800m 구간을 시속 80km로 날아가는 레포츠, 케이블카로 왔던 길의 1/3을 맨몸으로 내려간다고 보면 된다. 플라이어 탑승장 바로 옆에는 패러글라이딩 탑승장이 있다. 여기에서 패러글라이딩을 타면 융프라우 등 고산들과 툰 호수, 브리엔츠 호수 사이에 오롯이 들어찬 인터라켄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다. 보통은 인터라켄 시내의 잔디광장에 착륙한다.

트레킹이 목적이라면 바흐알프 호수에서 쉬니켈라테역까지 걸어가길 수 있다. 오르막과 내리막이 반복되어 체력을 꽤 요구한다. 대략 6시간 정도 걸린다. 대신 중간에 레스토랑이 있어 휴식을 취할 수 있다. 능선 길을 사이에 두고 한쪽은 융프라우와 아이거 등 만년설의 거봉이, 반대편은 인터라켄의 푸른빛 호수가 일망무제(一望無際)로 펼쳐져 있다.

스위스 하이킹의 보석 '체르마트'



✓ 마티호른 등 하늘을 향해 솟아오른 거봉들 감상

스위스를 여행하는 한국인이 꼭 가야 할 버킷리스트 중 한 곳이 체르마트(Zermatt·해발 1,650m)다. 인터라켄의 남쪽에 있는 작은 동화 같은 마을로 국내에서는 2013년 한 케이블방송에서 소개된 이후 찾는 이가 부쩍 늘었다. 이곳은 유명세에 비해 규모가 작은 청정마을이다. 바퀴를 달고 다니는 것은 전기차뿐이다. 자동차 여행객은 인근 도시에 차를 주차하고 열차를 이용해 마을로 들어가야 한다. 마을 전체를 도는 데 두 시간이 채 걸리지 않는다. 어디를 가더라도 '알프스의 여왕'이라는 마티호른(4,478m·시집)이 시야에 잡힌다.

체르마트는 프랑스의 샤모니와 함께 알프스 등산 및 스키의 메카로 알려져 있다. 장대한 만년설과 빙하로 둘러싸여 있는 분지형 마을로 약 400km에 달하는 하이킹 코스가 거미줄처럼 얽혀 있다.

세 군데의 하이킹 코스가 가장 많이 알려져 있다. 첫 번째가 마티호른 전망이 가장 좋다는 오버로트호른(3,425m). 이곳을 가려면 수네가 파라다이스 전망대(2,293m)로 이동해야 한다. 체르마트에서 수네가까지는 명승으로 불리는 케이블카를 이용한다. 수네가에서 다시 공중 케이블카로 로트호른(3,100m)에 오른다. 로트호른에서 오버로트호른까지는 오롯이 걸어야 한다. 2시간가량 걸어 정상에 서면 건너편에 마티호른이 웅장한 자태를 드러내며 묵묵히 쳐다본다. 내려올 때는 슈텔리제 호수를 지나간다. 호수에 비친 마티호른의 모습이 낭만적이다. 두 번째는 글래시어 트레킹. 글래시어 파라다이스 전망대(3,883m)는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간다. 이곳에서는 몬테로사(4,634m)에서 마티호른까지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4,000m 이상의 고봉(高峰) 29개를 감상할 수 있다. 하지만 눈보라가 치는 날이면 고봉은 커녕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다. 여기에서 케이블카 중간역인 퓨리까지 하산 트레킹을 즐길 수 있다. 세 번째는 등산열차를 이용해 고르너그라트 전망대(3,089m)에 올라 마티호른을 구경한 뒤 리펠베르그까지 트레킹을 한다. 고르너그라트는 마티호른을 비롯한 거대한 봉우리들을 손쉽게 볼 수 있어 항상 관광객들로 붐빈다. 라펠베르그까지의 하산길은 누구나 걸을 수 있는 쉬운 코스다. 노인은 물론 어린아이부터 갓난아기를 안은 젊은 부부, 산악자전거를 타는 연인, 심지어 강아지도 섞여 있다.

Reader's Quiz

E-MAIL

- 1 이번 호에서 가장 유익하게 본 칼럼과 이유는?
- 2 향후 사보에서 읽고 싶거나 다뤘으면 하는 내용은?
- 3 연간 70만 톤 생산 규모의 삼표산업 드라이물탈 제2공장은 00시에 자리 잡았습니다.
- 4 차량 교통정리를 통해 설립 이후 최초로 '레미콘 출하량 100만 루베 달성'을 목표로 삼은 삼표산업의 공장 이름은?
- 5 00경제는 물품을 소유하지 않고 서로 대여해 주고 차용해 쓰는 개념으로 인식해 경제활동을 하는 것으로 셰어링, 물물교환, 협력적 커뮤니티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위의 내용을 모두 채워서 8월 12일까지 이메일 [홍보팀 장새롬 과장 com2mi@sampyo.co.kr]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신세계상품권 3만 원 권을 보내드립니다. 임직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난호 퀴즈 정답>

- 1 삼표피앤씨 여주공장
- 2 1996년
- 3 진해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동양시멘트 인력개발팀 장재영 사원
삼표 물류SM팀 박세호 사원
삼표산업 청원영업소 공장 영업과 김은정 사원
삼표산업 총무팀 이지용 차장
네비엔 당진SLAG팀 최영식 대리

독자
퀴즈

함께 만드는 사람들

삼표그룹 사보는 계열사 곳곳의 소식을 전 그룹사에 전파하고자 사보 기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뉴스거리를 제보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소속 기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본사 삼표 홍보팀 장새롬 과장 com2mi@sampyo.co.kr / 레미콘 삼표산업 레미콘기획팀 한신 사원 hs1206@sampyo.co.kr
골재 삼표산업 골재영업팀 장성현 사원 ctzls77@sampyo.co.kr / 철도, 건설 네비엔 콘크리트설계팀 정지영 사원 yaya6954@neven.co.kr
분체 삼표기초소재 분체기획팀 박은지 사원 knam0908@sampyo.co.kr / 철스크랩, 환경자원 네비엔 환경기획팀 서동욱 과장 sdu2004@neven.co.kr
IT 삼표 시스템2팀 김은선 대리 dbswls1208@sampyoins.com / 물류 삼표 물류기획팀 황영만 대리 poireo@sampyo.co.kr
시멘트 동양시멘트 인사총무팀 최진호 대리 jinho.choi@tongyang.co.kr

신입입사

회사명	팀명	이름	직급	입사일자
남동레미콘	광주공장 관리과	신승훈	사원	2016.06.01
네비엔	pc/pile공사팀	김수현	사원	2016.04.18
네비엔	PC/PILE팀	김수현	사원	2016.04.18
네비엔	건축토목공사팀	김동현	사원	2016.05.02
네비엔	건축토목공사팀	이슬기	사원	2016.05.02
네비엔	건축토목공사팀	이인호	사원	2016.05.02
네비엔	건축토목공사팀	홍세미	사원	2016.04.18
네비엔	단양생산팀	권기만	사원	2016.06.01
네비엔	영업1팀_서대구	김준수	사원	2016.06.13
네비엔	영업1팀_서대구	윤종수	사원	2016.04.11
네비엔	영업1팀_서대구	주우혁	사원	2016.06.07
삼표	D/T영업팀 동부물류영업소	전태영	사원	2016.06.01
삼표	D/T운영팀 D/T운영관리	김대현	사원	2016.05.02
삼표	D/T운영팀 D/T운영관리	염정훈	사원	2016.06.13
삼표	D/T운영팀 남부물류영업소	황성주	사원	2016.04.18
삼표	D/T운영팀 서세종물류영업소	차현덕	사원	2016.04.25
삼표	F/C영업팀 F/C영업관리	김재용	사원	2016.06.13
삼표	경영개선팀	강수정	사원	2016.06.20
삼표	동양시멘트SM팀	이지윤	사원	2016.04.04
삼표	물류SM팀	박세호	사원	2016.04.04
삼표	물류운영팀 광양지사	안재환	사원	2016.06.13
삼표	삼표 경영관리팀	이민아	사원	2016.04.18
삼표	삼표SM팀	김고은	사원	2016.04.04
삼표	이앤씨SM팀	송건	사원	2016.04.04
삼표	전기제어팀	최현우	사원	2016.06.07
삼표산업	IT팀	이석원	사원	2016.04.11
삼표산업	강원영업소	이상필	사원	2016.06.16
삼표산업	강원영업소	장민현	사원	2016.04.18
삼표산업	골재영업팀	서명철	사원	2016.04.18
삼표산업	김포공장 영업과	윤병준	사원	2016.05.16
삼표산업	당진Slag공장 관리팀	송현우	사원	2016.05.16
삼표산업	당진Slag공장 생산팀	김휘명	사원	2016.04.01
삼표산업	동부영업소	정규원	사원	2016.04.18
삼표산업	레미콘물류운영팀	이재훈	사원	2016.06.13
삼표산업	분체기획팀	윤빛나	사원	2016.04.01
삼표산업	삼척사업소 생산과	김희소	사원	2016.06.16
삼표산업	서부공장 관리과	양태현	사원	2016.06.13
삼표산업	성수공장 영업과	김수애	사원	2016.04.01
삼표산업	안성공장 영업과	송명진	사원	2016.05.02
삼표산업	안성공장 영업과	양지현	사원	2016.04.18
삼표산업	인양공장 관리과	이민재	사원	2016.06.15
삼표산업	원료검사팀	김태준	사원	2016.05.16
삼표산업	원료검사팀	이세동	사원	2016.05.16
삼표산업	인천공장 관리과	김동호	사원	2016.04.18
삼표산업	인천공장 영업과	이금향	사원	2016.04.18
삼표산업	인천물탈공장 생산팀	조재상	주임	2016.05.02
삼표산업	일산공장 영업과	송보람	사원	2016.04.12
삼표산업	일산공장 영업과	홍성룡	사원	2016.06.13
삼표산업	천인Slag공장 품질관리팀	한진석	사원	2016.06.07
삼표산업	풍납공장 영업과	이동환	사원	2016.06.13
삼표산업	회계기획팀	임현정	사원	2016.04.18
삼표산업	회계기획팀	최승민	사원	2016.05.23
삼표이앤씨	pc/pile공사팀	고은식	사원	2016.05.02
삼표이앤씨	PC공무팀	정가득	사원	2016.06.01
삼표이앤씨	여주공장 품질관리팀	한성환	사원	2016.06.01
삼표이앤씨	제천PST공장 생산팀	전정재	사원	2016.04.14
삼표이앤씨	제천공장 생산팀	곽도칠	사원	2016.05.20
삼표이앤씨	제천공장 생산팀	곽형석	사원	2016.05.11
삼표이앤씨	제천공장 생산팀	김시웅	사원	2016.05.23
삼표이앤씨	제천공장 생산팀	김원중	사원	2016.05.23
삼표이앤씨	제천공장 생산팀	김정섭	사원	2016.05.23
삼표이앤씨	제천공장 생산팀	김형래	사원	2016.05.23

입사를 축하드립니다!

경력입사

회사명	팀명	이름	직급	입사일자
삼표피앤씨	제천공장 생산팀	박종원	사원	2016.05.04
삼표피앤씨	제천공장 생산팀	심관석	사원	2016.05.11
삼표피앤씨	제천공장 생산팀	전제진	사원	2016.04.01
삼표피앤씨	제천공장 품질관리팀	유준상	사원	2016.04.01
삼표피앤씨	제천파일공장 생산팀	김효중	사원	2016.06.16
삼표피앤씨	제천파일공장 생산팀	박명래	사원	2016.06.20
삼표피앤씨	제천파일공장 생산팀	서기준	사원	2016.06.01
삼표피앤씨	제천파일공장 생산팀	서정화	사원	2016.06.01
삼표피앤씨	청주공장 시설팀	임재명	사원	2016.04.06
삼표피앤씨	청주공장 시설팀	홍성현	사원	2016.05.02
신대원	안성사업소	손호능	사원	2016.04.04
신대원	양주사업소	유인업	사원	2016.04.01
신대원	정비팀	김경연	사원	2016.05.02
팬트랙	연마유지보수팀	이무형	사원	2016.06.01
포항항8부두운영	포항하역팀	김수현	사원	2016.04.20
포항항8부두운영	포항하역팀	윤형빈	사원	2016.04.20
포항항8부두운영	포항하역팀	이광호	사원	2016.04.20

회사명	팀명	이름	직급	입사일자
경한	영업2팀_울산	김민성	사원	2016.06.07
경한	영업2팀_울산	정의광	사원	2016.06.07
경한	영업2팀_울산	조명락	사원	2016.06.07
남동레미콘	광주공장 영업과	박태준	사원	2016.06.13
네비엔	건축/토목공사팀	이인호	사원	2016.05.02
네비엔	건축/토목공사팀	홍세미	사원	2016.04.18
네비엔	단양정비팀	김정주	과장	2016.06.07
네비엔	설계팀	심은혜	사원	2016.05.23
네비엔	영업1팀_서대구	김창국	사원	2016.06.06
네비엔	콘크리트 설계팀	이슬기	사원	2016.05.02
네비엔	포항공장 관리팀	황채영	사원	2016.06.13
네비엔	포항공장 생산팀	김석현	대리	2016.04.04
네비엔	포항공장관리팀	황채영	사원	2016.06.13
삼표	D/T운영팀 D/T운영관리	김정기	과장	2016.06.13
삼표산업	R/C품질경영팀	김홍배	차장	2016.06.01
삼표산업	마케팅1팀	이근수	차장	2016.06.01
삼표산업	사업지원팀	김승배	차장	2016.05.16
삼표산업	서부공장 관리과	최은철	사원	2016.04.19
삼표산업	서부공장 품질과	김관욱	과장	2016.06.01
삼표산업	성수공장 관리과	황준성	과장	2016.04.18
삼표산업	안성공장 관리과	이종찬	주임	2016.06.01
삼표산업	오산공장 영업과	이주호	사원	2016.05.02
삼표산업	원료검사팀	박상혁	사원	2016.05.16
삼표산업	원주공장 품질과	박용주	사원	2016.05.09
삼표산업	인천공장 관리과	정상조	사원	2016.04.01
삼표산업	인천물탈공장 생산과	방병식	사원	2016.06.20
삼표산업	청원공장 관리과	김남수	사원	2016.06.22
삼표산업	풍납공장 관리과	강형석	과장	2016.06.01
삼표산업	화성공장 영업과	김훈	사원	2016.06.13
삼표산업	화성사업소 관리팀	김종하	사원	2016.05.23
삼표이앤씨	pc/pile공사팀	안진찬	사원	2016.05.02
삼표이앤씨	신사업팀	권순정	차장	2016.05.16
삼표이앤씨	철도공무팀	한준영	차장	2016.04.01
삼표이앤씨	해외영업팀	한성호	과장	2016.04.18
삼표이앤씨	청주공장 관리공무팀	김영우	대리	2016.04.11
신대원	안성사업소 관리팀	송용석	과장	2016.04.18
신대원	예산사업소 생산팀	오지환	대리	2016.04.18
신대원	정비팀	김동훈	사원	2016.05.23